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지역학석사학위논문

티베트 3·14사건 발생배경과 국가·민족의 역학구조변화

-중국정부와 티베트민족을 중심으로-



2011년 8월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중 국 학 과

김 복 수

국제지역학석사학위논문

티베트 3·14사건 발생배경과 국가·민족의 역학구조변화

-중국정부와 티베트민족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창 경

이 논문을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8월

부경대학교 국제대학원

중 국 학 과

김 복 수

김복수의 국제지역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8월



주 심 역사학박사 조 세 현 (인)

위 원 문 학 박 사 예 동 근 (인)

위 원 문 학 박 사 김 창 경 (인)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과 목적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2
2. 선행연구 검토	4
3. 기존연구와의 차이점	7
4. 연구방법과 구성	8
제2장 3·14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10
1. 역사적 배경	10
2. 국내적 배경	14
1) 언어교육정책	14
2) 한족의 서부이주	17
3) 서부대개발	19
3. 국외적 배경	24
1) 망명정부의 활동	24
2) 해외지원단체의 활동	28
4. 전개과정	30
제3장 3·14사건 이후 중국정부 및 티베트민족의 대응	37
1. 3·14사건 이후 중국정부의 대응	37
1) 중국정부의 대내외적 대응	37

2) 언어, 행정, 종교정책 등에 대한 임시적 조치	41
3) 민족단결교육의 강화	46
2. 3·14사건 이후 티베트민족의 대응	55
1) 민족노선에 따른 차별적 대응	55
2) 언어, 종교정책 등에 대한 대응	59
제4장 결 론	65
참고 문헌	69



<표 차례>

<표-1> 칭짙철도 개통의 목적 및 의의	21
<표-2> 티베트 망명정부 현황	25
<표-3> 2008 티베트 관련 주요 사건일지	31
<표-4> 3·14사건 전·후 임시대응조치 비교	42

Background to the March 14 Tibet incident and the changes in the
dynamic structures of state and nation
- Focus on the Chinese government and Tibetan nation

Kim, Bok Su

Major in Chinese Studie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China attaches importance to unification of each ethnic as a multi-ethnic nation composed of the Han ethnic and 55 minority groups. Unification of ethnics in China means a unified country centered on the Han ethnic with other ethnics unified as one ethnic of China. Many minority groups already became included in the Chinese ethnic or are becoming one. However, partial rigid minority groups including Tibetans are refusing to be unified, not to mention becoming Chinese, and continuing inconvenient co-existence.

The 1st armed uprising which generated numerous casualties and damage failed, and among them, Dalai Lama the 14th and his followers escaped to India and established a refugee government, and is continuing movements for the independence of Tibet. And by establishing overseas branches of refugee government in each nation in the world, it took active participation in the demonstration of the March 14 incident while contributing to informing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Tibet's independence movement, human rights problem, environmental problem, and etc.

And even within Tibet, because complains overflowed towards many fields of policy, it influenced much in the occurrence of the March 14 incident. Among them, viewing some aspects which become the main reason, first, as the Chinese government thoughtlessly performed the emigration policy of the Han ethnic, after 1990, the number the Han ethnic reached 7.5 million and Tibetans gradually became a minority group. And it is providing residential support, utilization and distribution of culture and education facility, and etc to the emigrated Han ethnic which is a better privilege than what they provide to the Tibetans, and also it is providing exemption of taxation and the privilege of low interest loan to Chinese businessmen. Second, regarding language

education policy, double language education is gradually changing into Chinese education, and it is becoming more difficult to get a job if they do not master Chinese language, and also they are having disadvantage in one's social life, and even the children are being prohibited from having Tibetan name. Third, the execution of the great west development by utilizing the abundant resource of the west to seek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brought much economic growth and change in the Tibet area, but it showed a strange phenomena, which is the emigrated Han ethnic gaining the privilege of the actually followed economic wealth, and also, as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traditional culture severely damaged due to thoughtless development, the conflict and enmity between Tibetans and the emigrated Han ethnic deepened.

Meanwhile, after the March 14 incident, China also considered political measures for preventing recurrence of the demand for separation and independence of the rigid minority ethnics including Tibet. Especially, regarding Tibet, as cultural policy, it issued a Tibetan language version of the People's Daily newspaper and also opened a radio broadcasting station using Tibetan language and enabled security of its system and the function of figuring out how well the notice of the party government is delivered to the people. In addition, to prevent thoughtless mobilization of governmental authority even in trivial demonstrations of minority groups, it ceased the local government's dogmatic decision of sending in the law, and revised the law so that it would mobilize armed police in demonstrations after gaining permiss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Regarding policy in religion, it strengthened its suffocation. It is because religion in Tibet is the daily life and is absolute, and with such speciality and cohesion, the leading group of demonstrations is mainly the monks, and in the center, there is always the refugee government of Tibet and the greatest leader of Buddhism, Dalai Lama the 14th. Therefore, as a series of the plan for suppressing religion, it even strengthened the system of registration regarding religious activity and the policy of managing Tibetan temple.

Despite the series of the Chinese government's changed political measures for reconciling the rigid minority group including Tibet, it is a reality that it is not showing clear effect. And because Dalai Lama the 14th, the absolute leader of the Tibetan ethnic and the greatest obstacle of the Chinese government, is appealing the complete self-governing of Tibet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demanding it to the Chinese government rather than the independence of Tibet, even after the March 14 incident in 2008, it is a reality that problems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Tibet are scattered.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중국정부와 티베트와의 반복되는 갈등 문제는 근본적으로 복잡하면서도 오랜 역사적 관계를 지니고 있다. 과거 역사를 차치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사안은 1950년 중국 공산군의 티베트 침공 이후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현실의 역사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국과 티베트 간의 화합이 최우선일 것이다. 3·14사건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일시적으로 국제사회에 티베트에서 발생하는 인권탄압과 분리독립 문제를 이슈화 하였지만, 중국의 티베트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티베트에는 매년 3월이면 1959년 ‘라싸(拉薩)무장봉기’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와 집회가 열린다. 티베트인들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를 기회로, 1959년 ‘라싸무장봉기’ 50주년을 1년 앞당겨 2008년 3월에 티베트의 분리독립과 인권탄압을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였다.

2008년 티베트에서 발생한 3·14사건은 이전 티베트 라싸(拉薩)의 국한된 지역에서만 봉기가 발생한 것과 달리, 쓰촨(四川), 간쑤(甘肅) 등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도 동조 시위하여 지역적으로 비교적 광범위하게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3·14사건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아직도 중국정부와 티베트 간의 갈등은 남아 있는 상태이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로써 각 민족 간의 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민족통합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티베트와는 지속적으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티베트민족은 여타

소수민족과는 달리 민족적, 종교적, 특수성 때문에 중국화(漢化)가 쉽게 되지 않고 있다. 종교적 특수성과 독특함을 지닌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인들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종교로써 다른 민족들의 관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중국정부가 티베트를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티베트인들이 신봉하는 불교를 항상 고려해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티베트 불교의 최고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중국정부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기도 하다. 현재 티베트인들이 존경하고 의지하는 달라이 라마의 그 직위는 17세기 중엽 몽고제국의 지원 아래 달라이 라마가 정치와 종교의 수반을 맡는 정교합일¹⁾의 직위에 놓여 있다. 이러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민족 분열을 불허하는 중국정부와 항상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립과 갈등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중국과 티베트의 현실 상황과 2008년 티베트에서 발생한 3·14사건을 중심배경으로 티베트 문제를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연구목적

지난 2008년 3·14사건 발생을 계기로 당시 세계의 이목은 중국과 티베트 그리고 베이징올림픽 개최여부에 집중되었다. 3·14사건 당시 중국정부는 계엄령을 발포하지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병력 동원으로 강경진압하여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을 접한 국제사회 가운데 프랑스 등 서유럽 일부 국가만이 베이징올림픽 참가를 보이콧 하겠다며 중국정부의 무력진압과 티베트에 대한 인권탄압을 비난했을 뿐이었다. 티베트에서 유혈시위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중국정부에 대해

1) 김석근, “티베트 불교와 달라이 라마의 역사정치학: ‘정치와 종교’의 얽힘과 분화를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제4집 2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5), p.198.

전면적 비난을 자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현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제고된 위상을 재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현재의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제고된 위상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 단적인 예는 3·14사건이 발생한 다음 해인 2009년 신장위구르의 수도인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혈시위사태에서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이때에도 중국정부는 강경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지만 국제사회의 여론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중국을 비난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었다.

중국이 경제적 발전으로 세계 강대국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는 자국의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고 국가 내부적으로 모순된 요소들을 차단하여 국제사회의 비난 소재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중국의 제고된 위상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는 티베트와 같은 민족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티베트 망명정부와 달라이 라마는 국제사회에 대해 끊임없이 티베트의 독립과 고도자치 및 고유문화 등의 보존을 위해 지지와 지원을 호소함으로써 중국정부와 갈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의 연구목적은 먼저 이러한 중국정부와 티베트 간의 현실 상황 속에서 발생한 2008년 티베트 3·14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은 다민족국가로써 중화민족다원일체화를 표방하고 三個離不開²⁾를 내세우며 민족단결과 민족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티베트는 중국에 쉽게 동화되지 않고 있는데 티베트가 여러 소수민족과 달리 쉽게 한화(漢化)되지 않는 원인을 살펴보고, 그리고 3·14사건을 계기로 중국정부와 티베트가 대내외적으로 취한 대응방법과 3·14사건 이후 중국정

2) 三個離不開(삼개리불개): 민족단결교육의 핵심 목표로써 ‘한족은 소수민족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으며, 소수민족은 한족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소수민족 간에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의미.

부의 변화된 정책조치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2008년 3·14사건이 발생한 후 국내에서는 티베트에 관한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다. 먼저 이희옥의 「티베트 자치문제의 지속과 변화: 3·14사건 분석을 위한 시론」(2008)에서는 티베트가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성이 없으므로 티베트의 ‘진정한 자치’를 주장하는 과정과 3·14사건 발생 과정 및 진압 배경 등을 소개한 내용이다. 이 글은 2008년 티베트에서 발생한 3·14사건을 계기로 중국정부가 안고 있는 티베트 문제의 지속적인 갈등과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재호의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티베트 분리 독립운동」(2009)에서는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폈고, 티베트의 민족정체성과 민족주의로 인한 분리 독립운동의 기원과 전개를 시기별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3·14사건의 발생으로 인한 대내외적 상황을 살폈고, 티베트 분리독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달라이 라마의 활동 및 그의 리더십을 고찰하였다. 이 글은 3·14사건이 발생된 배경, 상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비교적 짧게 기술하였다.

나영주의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구상」(2009)은 중국이 보는, 중국 측 시각과 입장에서 티베트 문제에 관한 정책이나 구상이 아니라 그 동안의 정치적, 종교적 행보에서 보여준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구상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티베트 문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달라이 라마’ 제도의 정착과 정치, 종교적 위상에 관해 살폈다. 또한 3·14사건을 계기로 티베트에

서 발생하는 잦은 시위와 충돌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였고 이러한 시위와 소요 과정에서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에 관한 구상이 갖는 한계, 그리고 티베트의 정치·사회적 상황의 분석과 흔들리고 있는 달라이 라마의 위상을 분석한 내용이다.

김재원의 「중국의 대티베트 정책의 변화와 유형」(2009)은 청조부터 현재까지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사를 비교적 자세하게 고찰하였다. 청조 시기는 티베트를 내정간섭과 지배시기로 보았다. 또한 청말 짧은 기간 동안 티베트는 독립 상태를 유지하였다. 중국은 1950년 티베트 침공 이후 민족정책의 일환으로 티베트를 한화시키고자 각 시기별로 변화된 정책을 전개하게 된다. 중국정부의 다양한 정책 시도에도 불구하고 티베트는 민족적, 종교적, 특수성 때문에 한화가 되지 않고 중국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그 과정과 정책들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티베트자치구에는 여타 자치구와는 달리 티베트인이 90%에 육박하므로 이러한 민족구성비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국정부로서는 민족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임을 강조한 내용이다.

최지영의 「중국의 티베트 정책 고찰(1949~2008): 민족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인식을 중심으로」(2009)를 보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2008년 3·14사건까지 지난 59년 동안 중국의 티베트 정책을 중국 공산당의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 있어서 티베트는 정치, 경제, 군사,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므로 티베트 정책에 대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은 중국 민족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목표가 사실상 “개별 소수민족의 소멸과 한족 중심의 동화”임을 밝히고, 이러한 목적 하에 지난 반세기 중국의 티베트 정책을 1) 1949~1959까지 ‘온건동화정책’ 2) 1959~문화대혁명까지는 ‘급진동화정책’ 3) 문·혁~1989년은 티베트민족의 특수성을 인식한 ‘온건동화정책’을 4) 1989년~2008년 3·14사

건까지는 사회주의개조(생산력중심)를 통한 ‘급진동화정책’이라 구분하고 중국의 주요 지도자들의 발언과 중공 중앙의 티베트 관련 문건을 통해 고찰한 글을 소개하였다.

정천구의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티베트민족 독립운동」(2008)에서 연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티베트인의 정치적, 종교적 최고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1959년 티베트를 탈출하여 인도에서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다. 그는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 서방 국가에게 지지와 지원을 호소하며 물리적으로 중국정부와 대항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국제정세는 점차 탈냉전 분위기로 바뀌면서 달라이 라마의 독립운동은 비폭력과 티베트의 고도자치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다. 변해가는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독립운동과 그의 활동에 대하여 주로 기술하였다. 또한 티베트가 중국에 병합 당하게 된 원인을 살폈고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운동의 배경이 되는 티베트의 정교일치체제와 불교에 대해 살펴본 다음 티베트 비폭력민족운동의 전개과정을 고찰한 논문이다.

이민자의 「2008년 티베트인 시위를 통해 본 중국의 티베트 문제」(2009)에서는 중국정부의 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분리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 원인 및 중국정부와 티베트민족 간의 현실인식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리고 티베트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이유를 ‘대티베트 고도자치’를 통해 살폈고, 티베트 문제가 중국에게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국내외적 차원에서 분석한 내용이다. 또한 이 글은 3·14사건 당시의 내용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보도 자료를 주로 인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는 본 연구자와의 일부 인용부분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 기존연구와의 차이점

티베트의 분리 독립운동과 달라이 라마가 추구하는 고도자치 및 티베트 고유문화 보존이라는 과제는 3·14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에도 14대 달라이 라마는 영향력 있는 세계 각국 정상들을 접견하며 티베트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행보를 하는 달라이 라마에게도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그 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중국내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화합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3·14사건 이후 중국정부는 티베트를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적 관점과 조치에 대하여 다소 변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래의 중국을 이끌어 갈 청소년에게 다민족국가체제가 당연히 안고 가야할 과제인 민족단결과 화합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더욱 집중적으로 교육하고자 노력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중국정부의 상황까지 고찰한 본 논문은 기존논문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현재성이다. 기존 연구 자료는 2008년 티베트 등지에서 발생한 3·14사건을 중심으로 티베트 정책과 문제들을 다루었지만 3·14사건 이후 중국정부와 티베트의 상황들을 연구한 자료들은 부족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3·14사건 이후 중국정부가 티베트를 비롯한 강성 소수민족의 소요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최근에 나타난 티베트 민족의 대응까지 연구함으로써 현재의 중국정부와 티베트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둘째 가치성이다. 단 한편의 논문으로 중국과 티베트 간의 오랜 역사적 관계와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 관계를 전부 이해할 수 있게 기술할 수는 없지만 본 논문은 티베트 3·14사건의 발생 배경과 그 이후의 변화 과정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본

논문만으로도 3·14사건 및 중국정부와 티베트민족의 관계, 갈등상황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가치성이 있는 논문이라 할 수 있다.

4. 연구방법과 구성

2008년 티베트 3·14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는 티베트에 관련한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본 연구자는 티베트 3·14사건은 물론 그 이후의 여러 과정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의 티베트 관련 논문들을 우선적으로 참고하였다. 그리고 티베트민족의 독립운동과 3·14사건의 배경 등에 대해서 기존 1차 자료와 2차 자료들을 참조하여 분석하였다. 3·14사건의 전개 과정과 이후의 정책조치 등에 대해서는 1차 자료가 부족하여 주로 2차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참조, 문헌적 접근방식을 택한 연구 논문이다.

시간적으로는 중국과 티베트의 복잡하게 얽힌 오랜 과거 역사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 이후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공간적으로는 중국과 티베트자치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티베트인들이 본래 티베트 영토라고 주장하는 압도·캄(칭하이, 간쑤, 쓰촨 등) 지역도 일부 포함시켰다. 그리고 티베트망명정부가 활동하는 인도 다람살라와 달라이 라마의 국제적 활동까지 연구범위로 정하였다.

논문의 구성에는 먼저 1장에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선행연구의 검토와 기존연구의 차이점 및 연구의 방법과 구성에 대해 소개하였다. 2장 3·14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에 있어서는 3·14사건의 최초 배경이 되는 1950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침공으로 시작하여, 불거진 중국과 티베트 간의 민족갈등의 원인과 티베트의 해외단체들의 활동 상황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티베트에 대한 편견된 민족정책의 불만과 원인 그리고 서부대개발로

인한 반한(反漢) 감정을 다루었다. 또한 3·14사건의 발생과정과 진압, 그리고 피해상황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3장 3·14사건과 중국정부 및 티베트민족의 대응 부분에서는 3·14사건의 발생으로 중국정부가 시위자들과 티베트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과 티베트와 소수민족에 대한 언어, 행정 및 종교 등에 관한 임시적 정책조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중국정부가 중국인민과 소수민족에게 민족단결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며 강화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리고 3·14사건 이후 티베트인들과 달라이 라마는 중국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대응을 했고,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성해보았다. 4장 결론에서는 앞의 글을 요약하고 본 연구를 통해 3·14사건을 재조명해 보며 현실의 역사 속에서 중국정부와 티베트의 안정적으로 상호 발전해야 함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 3·14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1. 역사적 배경

티베트는 중국 서남지역에 위치하며, 면적은 122만8,400km², 인구는 281만 명(2006)이고 티베트자치구 또는 서장(西藏)이라고도 한다.³⁾ 미얀마, 네팔, 캐시미르 등과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티베트는 수세기 동안 중국과 인도 사이의 완충지대⁴⁾로써 현재에도 중국과 인도 간의 영토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1914년 영국이 티베트와 맺은 영국령 동북부와 티베트 간의 경계선, 이른바 '맥마흔(McMahon)라인'이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됐고, 중국은 “영국이 설정한 맥마흔 라인은 불평등조약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도는 1959년 티베트 라싸무장봉기 당시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달라이 라마에게는 은신처를 내줬다. 이 때문에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되었으며, 1962년과 1975년에는 중국과 인도 간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티베트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인도와 분쟁지역으로 완충역할을 하는 군사 요충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티베트에서 2008년 3월 대규모 유혈시위사건이 발생하였다. 3·14사건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티베트와 중국의 오랜 과거 역사적 관계에 내재되어 있다. 상호 간 과거 역사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에게 유리한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티베트 독립의 당위성을 티베트 독립국의 역사적 존재로부터 찾으려는 티베트 측의 주장이나, 중국의 티베트 통치의 당위성을 역대 중국-티베트의 관계에서 찾으려는 주장

3) R.A 슈타인·안성두 옮김, 『티벳의 문화』 (무우수, 2009), p.49.

4) 폴 인그람·홍성녕 옮김, 『티베트 말하지 못한 진실』 (알마, 2008), p.297.

이 상호 간에 논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67년 티베트인 쉐폰 샤캅파(Tsepon W.D. Shakabpa)가 『티베트 정치사(A Political History)』라는 책을 통해 티베트의 역사적 독립성을 주장하면서부터이다. 이에 중국 측의 입장을 옹호한 왕귀(王貴), 희요니마(喜饒尼瑪), 당가위(唐家衛) 등이 공동 집필한 『서장역사지위변(西藏歷史地位辯)』을 통해서 티베트 측의 주장을 비판하여 치열한 논쟁은 계속 되고 있다.⁵⁾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망명정부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티베트의 독립 운동을 지지하기 위해 티베트가 독립 국가로서의 역사적 유래와 전승을 주장하였고, 중국의 티베트 통치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분으로서 독립불가론의 이론적 근거를 역대 중국 왕조들과 티베트 간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는 티베트 측의 샤캅파(Shakabpa)와 반프라그(Van Praag)의 저서, 중국 측의 왕귀, 중국 반체제 인사 등의 저서와 논문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1950년 중국의 티베트 진입이 역사적으로 독립국가에 대한 ‘무력점령’인지, 아니면 역사적 연고권이 있는 지역에 대한 ‘화평해방’인지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데 양측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합당한가를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예민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첫째 먼저 중화민국이 성립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기 전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티베트는 원몽(元蒙)이 망하고, 만청(滿清)이 망할 때 독립을 선언하였다. 즉 중국의 지배 민족의 세력이 약화되었을 때 독립을 추진한 것이다. 청이 신해혁명으로 무너질 때 티베트에 주둔하던 청군과 암반들을 모두 추방하였다. 달라이 라마 13세에 의해 독립이 선포되었고, 자체의 화폐, 사법제도와 우편 및 징세 제도, 10,000~15,000명의 군대가 있었다. 또한 1911년 독립을 선언한 몽고와 1913년에 티베트-몽고

5)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 그 역사적 관계에 대한 연구적 이해』 (소나무, 2000), pp.15-22.

간에 우호동맹조약을 체결하고 몽고와 티베트는 만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국가가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1914년에는 심라에서 영국-티베트 간에 맺어진 조약은 티베트의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중국 측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력도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18년과 1930년에 두 차례 양측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고, 양측은 정전협정을 체결하였다는 측면에서도 독립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2회에 걸친 전쟁으로 정전협정을 맺었으며, 그 결과 티베트 측의 영토는 더 늘어나게 되었으며, 1932년 강장(康藏)정전협정과 1933년 청장(靑藏) 정정협정 이후 중국 공산당이 티베트에 진입할 때까지는 전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양측 간에 교섭을 통한 정전협정의 체결은 사실상 티베트를 국가적 실체로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

둘째 티베트는 1934년 13세 달라이 라마의 죽음과 14세 달라이 라마의 좌상(坐床:즉위)을 계기로 중화민국 정부가 파견한 황모송(黃慕松) 조문 사절단과 오충신(吳忠信) 경축 사절단을 맞아 독립과 자주 의지를 거듭 표명하였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영국과 중화민국의 압력을 거부하면서 중립적 외교 노선을 고수하였으며, 전쟁 후에는 승전 축하 사절단과 무역 사절단을 구미와 인도, 중국 등으로 파견하여 독립 국가의 외교 역량을 시위하였다. 이 시기에 티베트인들이 취한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티베트의 국가적 성격과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는 당연히 양측 논쟁의 주요한 쟁점이 되었다.⁷⁾

셋째 중국과 티베트 간의 역사적 관계 속에서 제도적 장치를 놓고 보면 토번-당의 관계에 대해 티베트 측은 긴장관계 내지는 대등 독립관계로 보고 있다. 7~9세기 티베트는 독립적이고 팽창적인 세력으로서 중국, 아랍,

6) 김재기, “티베트의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운동의 기원과 전개”,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3호 (대한정치학회, 2006), pp.36-37.

7) 김한규(2000), 앞의 책, p.212.

투르크 등과 더불어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다룬 경쟁자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주장을 한다. 반면에 중국 측은 우호관계 내지는 상하관계로 보고 있다. 서번(西蕃)-송의 관계에 대해서 티베트 측은 티베트-송(宋) 무관론에서 송나라와 티베트는 무관하다고 보고 당시 티베트 대외관계는 중국에서 인도나 네팔 등지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중국 측은 당시 상하-주속관계로서 책봉과 조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오사장(烏斯藏)-몽원 관계에 대해 티베트는 단월-공시관계 즉 원나라 황제와 티베트 달라이 라마 사이에 단월-공시라는 종교적 관계로 상호의존적으로 보고 있다. 중국 측은 단월-주속관계론을 주장하고 있다. 오사장-명시대에 대해서는 티베트는 명나라(주원장)가 원나라를 계승하지 않았다고 보고 티베트 독립 취득론을 주장한다. 반면에 중국 측은 상하-주속관계 내지 조공-책봉관계, 주속관계로 주장한다. 티베트-중화민국 시기에 대해 중국 측이 지방정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티베트 측은 독립적인 국가였음을 주장한다.⁸⁾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군은 ‘해방’과 ‘민주개혁’의 명분으로 티베트를 무력으로 점령하였고 1951년 불평등조약(17조 협의)을 통해 티베트의 외교권도 접수했다.⁹⁾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체결된 <17조 협의>로 인하여 인민해방군이 티베트에 주둔하게 되고 티베트의 외교를 책임지고, 티베트의 자치를 인정하며 달라이 라마의 지위를 바꾸지 않으며 사회주의 개혁을 강요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였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1959년 중국정부는 ‘민주개혁’을 통해 티베트 전통 사회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의 <17조 협의>의 약속 불이행의 결과로 1959년 티베트에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달라이 라마는 1959년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3월 17일 1300여명의 추종자를 이끌고 라싸를 떠나 인도로 망명하였다.¹⁰⁾ 그 후 달라이 라마는 다람살라에 망명정

8) 김재기(2006), 앞의 논문, pp.37-38.

9) 김한규(2000), 앞의 책, pp.308-309.

부를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티베트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중국정부와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2. 국내적 배경

1) 언어교육정책

티베트민족은 언어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있다. 이중언어교육의 시작은 신중국이 성립된 직후인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51년 전국 제1차민족교육업무회의(第一次民族教育工作會議)에서 통과된 문건에는 당시 문자가 통용되고 있던 몽고족, 조선족, 장족(티베트), 위구르족, 하사크족 등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은 반드시 본 민족의 언어로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본 민족의 문자가 없는 민족은 한어를 사용하거나 그들이 원하는 언어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1956년에는 소수민족학생들이 한어를 습득하는 것에 대한 애로를 파악한 정부는 대학입시에서 본 민족의 언어로 답안을 작성하고, 이들의 성적이 비교적 낮더라도 대학에 합격시켜주며, 이들의 한어수준은 수업을 들을 수만 있으면 합격시키도록 하였다. 1962년에는 민족중학을 졸업하고 대입에 참가하는 소수민족 학생들에게는 고대한어 시험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 1981년에는 민족자치구에 있는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여 교육을 하는 대학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대학입시를 치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소수민족의 본 민족언어 사용과 관련한 내용은 1980년대 들어 명

10) 이민자, “2008년 티베트인 시위를 통해 본 중국의 티베트 문제”, 『현대중국연구』 제11집 1호 (현대중국학회, 2009), p.8.

시된다. 1984년에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에는 ‘소수민족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마땅히 소수민족문자로 쓰여진 교재와 소수민족언어로 교육한다.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에 한어과정을 설치하여 보통화가 전국적으로 통용되게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986년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에도 ‘학교는 마땅히 보통화의 사용을 확산하도록 한다.’고 했고 1992년 <민족교육업무를 강화하는 것에 있어서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에서도 ‘민족 언어와 문자를 사용하여 교육을 하는 지역에서는 현지의 실정에 알맞게 이중언어교육을 실시하여, 보통화의 확대에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1990년대까지 진행되어온 소수민족교육에 있어서의 이중언어교육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운영되는데, 우선 본 민족의 언어는 있으나 문자가 없는 민족에게는 입학 전 교육 또는 소학 저학년에서 본 민족의 언어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교육을 진행한다. 둘째 초·중·고에서 본 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학년부터 한어어문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셋째 한어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소학 1학년부터 반드시 본 민족의 언어를 학습해야 한다. 즉 민족언어 및 문자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반드시 한어를 배워야 하며, 한어만을 사용하여 수업하는 소수민족들에게는 반드시 해당 민족의 언어를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 이중언어교육의 핵심이다.¹¹⁾

하지만 티베트에 대해서는 조금씩 언어교육이 바뀌가고 있었다. 중국정부는 지난 1987년 티베트자치구에 ‘티베트어의 학습, 사용 및 발전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티베트어 교육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것이다. 학교에서 티베트어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티베트어로 수학·물리·화학 등 과목을 가르치도록 했다. 법안 발표 후

11) 김정호, “중국의 소수민족교육과 다민족교육 -중국초등사회과의 다문화 교육내용 탐색-”, 『사회과 교육』 제47집 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8), pp.120-121.

티베트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티베트어로 강의하는 시범반이 개설되었다. 이 시범반의 대학입시 성적은 중국어반 보다 뛰어났고, 각 지방 초·중·고교 티베트어 강사도 육성하였다. 그러나 2002년 위 법안의 수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그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이중언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바뀌었고, 고등학교와 대학의 티베트어 강의는 거론되지 않았다. 정부의 태도가 바뀌면서 교육은 점차 중국어 교육으로 후퇴하게 되었다. 비록 2002년의 법안이 여전히 티베트어를 초·중학교에서 가르치는 두 개 언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더 이상 티베트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교육의 연결성을 확보할 수 없어졌다.¹²⁾

중국어 교육으로 후퇴하고 있는 또 다른 대목을 보면 '1989년 7월부터 티베트자치구에서 티베트어 사용이 허가될 것이라는 1988년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일부 시골 학교에서 티베트어 교육이 허가되기는 했어도 최고 수준의 학교에서는 여전히 중국어 교재를 사용한 교육이 시행되었으며, 티베트어 교육을 격려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중국어에 통달하지 못하는 한 아무런 직업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자 언어의 사용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많은 장소에서 티베트어를 사용해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여러 곳에서 중국어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까지도 티베트인 부모가 아이들에게 티베트 이름을 지어주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¹³⁾ 일 년에 한 번씩 가이드 자격증, 사업 허가증, 운전 면허증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 되어 이들 시험은 모두 중국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티베트의 지주 산업으로 지정한 관광, 건설,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티베트인은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¹⁴⁾

12) 조경란, “중국의 주변문제, 티베트를 보는 다른 눈-한족 출신 양심적 지식인 왕리승과의 대담”, 『역사비평』 85호 (역사비평사, 2008), p.151.

13) 폴 인그랩(2008), 앞의 책, p.93.

14) 아브라함 루스트가르텐·한정은 옮김, 『중국의 거대한 기차』 (에버리치홀딩스, 2009), p.170.

이러한 티베트어 교육에 대한 불만이 2010년 10월 19일 칭하이(靑海)성 황난(黃南)장족(티베트인)자치주 등에서 대규모 시위로 번졌다. 20일에는 칭하이성 황난장족자치주 궁허현의 4개 학교 2000여 명의 학생들이 “우리는 티베트어의 자유를 원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청사까지 거리시위를 벌였다.¹⁵⁾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티베트어에 대한 사용 억제를 강화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티베트민족이 중국의 언어교육정책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다.

2) 한족의 서부이주

티베트자치구는 티베트인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일한 성급 행정구역이다. 또 다른 독립요구 지역인 신장위구르자치구에 거주하는 위구르족이 자치구 인구의 45%를 차지하는데 비해 티베트자치구에서는 티베트인의 비율이 90%를 넘는다. 만약 중국정부 입장에서 이러한 민족구성 비율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티베트의 한화(漢化)는 훨씬 용이할 것이다.

티베트자치구의 민족구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정책은 크게 산아제한과 본토로부터의 이주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1가구 1자녀 정책을 추진하여 산아제한정책을 쓰고 있었다. 그러다 1984년부터 티베트 지역정부는 티베트인을 대상으로 1가구 2자녀의 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티베트자치구에서는 1984년 이전까지 한족에게만 산아제한정책이 적용되었고, 티베트인은 산아제한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1984년 티베트인에게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하긴 했지만, 지역 인구의 88% 이상을 차지하는 티베트 농부와 유목민에게는 가족계획 정책이 강제되지 않았다¹⁶⁾고 한다.

15) 『한겨레신문』, 2010.10.22.

16) 김재원, “중국의 대 티베트 정책의 변화와 유형”, 『민족연구』 35호 (한국민족연구원,

반면 한족의 서부이주는 티베트 침공 이후 1952년부터 시작하여 이주민 구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해왔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1983년부터는 티베트로의 중국인 이주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1985년 라싸에는 중국인 거주민이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밖에 없었는데, 1989년 3월에는 라싸에 10만이 넘는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압도·감(칭하이, 간쑤, 쓰촨, 윈난 일부지방)지역을 포함한 과거 티베트지역에 거주하는 한족의 수가 490만이라는 1990년 중국 인구조사 결과를 지적하면서, 등록되지 않은 중국인의 수를 합하면 티베트지역들에 사는 중국인의 수는 750만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정부가 티베트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티베트로 이주하는 한족들에게 주택, 보건, 문화 및 교육 시설 이용, 배급 등에서 티베트인보다 훨씬 좋은 혜택을 줬다고 주장한다. 또한 티베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중국 본토에 거주할 때보다 87%나 높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중국 본토에 있을 때보다 휴가가 훨씬 길어서 18개월 일할 때마다 3개월씩 중국 고향으로 휴가를 가고, 그 비용도 중국정부가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티베트인이 티베트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비해 중국인 사업가는 세금면제와 저금리 대출의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¹⁷⁾

1990년대 이후 서부대개발(1999년 발표)이 실시될 무렵에는 티베트로의 인구유입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달라이 라마는 “칭짱철도(티베트와 칭하이성을 연결하는 철도노선) 계획이 한족 2,000만 명을 대거 티베트로 이주 시킴으로써 티베트 주민들을 소수민족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¹⁸⁾이라며 인구 유입을 비판하였다. 서부대개발로 인하여 작업인력이 증가한 경우도 있지만 중국정부는 서부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였다.

2009), p.69.

17) 김재원(2009), 위의 논문, p.71.

18) 『한국일보』 2001.04.03.

즉 서부로 이주하는 사람에게는 자녀가 명문대학에 지원할 경우 소수민족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서부지역의 대학에 석사시험을 치르면 특혜를 베푼다.¹⁹⁾ 그리고 중국의 교육부와 공산주의 청년단은 공동으로 대학 졸업생이 서부로 가서 빈곤지구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고 대학생의 취업과 창업통로로 개척하기 위해 ‘대학졸업생 서부복무계획’을 입안하였다. 이 계획은 2003년 대학졸업생 6천 명을 서부 12개 성·자치구·시의 빈곤 현으로 1-2년간 보내 교육·위생·농업·기술·빈곤퇴치 등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 6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이 계획에 지원한 졸업생은 5만 명이였다.²⁰⁾ 이러한 한족의 유입으로 실질적 경제적 혜택은 한족만이 누리는 기형적 형태가 나타나고, 이주한족이 티베트인의 풍속·습관·종교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민족 간의 갈등은 심화되었다.

3) 서부대개발

중국정부는 낙후된 서부지역을 발전시키고 서부의 풍부한 자원을 이용, 동서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서부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계기로 티베트를 비롯한 강성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정서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등의 목적으로 서부대개발²¹⁾을 실시하였다. 서부대개발의 근거는 덩샤오핑의 ‘양개대국론(兩個大局論)’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동부 연해지역의 유리한 요소를

19) 『한겨레신문』 2000.07.14.

20) 윤휘탁, “현대중국의 서부변강민족정책과 ‘국민국가’ 완성하기-서부대개발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37집 (중국사학회, 2005), p.267.

21) 서부대개발: 중국의 동부 연해 지구 중심의 경제발전으로 뒤쳐진 내륙 서부 지구를 경제성장 궤도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이 실시하고 있는 개발정책 및 그 결과로서의 경제동향을 가리킨다. 이 정책은 2000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 결정된 4개의 프로젝트로 다음과 같다. 서전동송(西電東送)- 서부의 전기를 동부로 보냄. 남수북조(南水北調)- 남부의 수자원을 북부로 보냄. 서기동수(西氣東輸)- 서부의 천연가스를 동부로 운송하는 가스 수송관 건설사업. 칭짱철도(靑藏鐵道)- 시닝과 라싸를 연결하는 철도사업 등의 대공사를 말한다.

활용하여 선개발하고(先富論), 중서부지역의 개발에 활용하여 공동발전을 모색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정부의 3단계 경제발전전략은 제1단계 온포(溫飽:배불리 먹을 수 있는 단계)로 1990년대 달성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제2단계 소강(小康:여유 있는 생활)은 2000년에 기본적으로 달성되었다. 제3단계는 21세기 현대화 단계를 통해 부강하고 문명화된 민주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것으로,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서부개발이 필수적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지역 간 경제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 자원분포와 산업분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서부대개발의 기치아래 공식적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²²⁾을 이루고자 하였다.

서부대개발로 서부지역 특히 티베트지구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동부지역보다는 미약한 발전 부분이 나타났다. 한 예를 보면 티베트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목축민의 순수입 증가율이 서부대개발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9년에 8.6%, 2000년 5.8%, 2001년 5.5%로 증가했지만, 1979~2001년의 평균 증가율 9.48%에 못 미쳤다.²³⁾ 그리고 소수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서부지역과 한족이 차지하고 있는 동부 연안 지방과의 경제적인 불균형은 소수민족지구의 불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전국 당시 공업발전지표를 보면 동부해안지역의 요녕·하북·산둥·강소·절강·북건·광둥 등 7개 성과 북경·천진·상해 등 3개 市の 토지면적은 전 국토의 30%에 불과하지만 공업총생산의 전국 75%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 국토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소수민족지역은 전국 공업총생산액의 3.8%에 불과하였다. 이것을 액수로 보면 상해는 35.06억 원, 요녕성은 11.91억 원이며, 천진은 6.93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국의 민족자치지역은 5.4억 원에 불과하였다. 1957년에도 29.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22) 전황수,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IT 정책”, 『전자통신동향분석』 제18집 6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3), p.86.

23) 李祥妹·劉健, “西藏自治區農牧民人均純收入動態分析” 『山地學刊』 第21卷 增刊 (2003.12), p.82.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 일고 있는 소수민족과 중앙정부 간의 충돌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²⁴⁾

2001년까지의 더딘 성장세가 2003년 이후에는 티베트에도 확연한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티베트자치구 지방정부는 2003~2007년 5년간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2008년 1월 16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티베트자치구는 11.5계획 실시로 인하여 5년간 빠른 경제성장으로 2007년 티베트자치구 생산총액은 342억 위안을 달성하였고, 1인당 GDP는 12,000 위안을 초과하였으며, 경제는 7년간 12%이상 성장 속도를 유지하였고, 5년간 평균 12.7%씩 증가하였다. 2007년에는 지방재정의 일반예산수입이 37.4% 증가하였고, 사회고정자산투자는 16.2% 증가, 사회소비품소비총액은 24.9% 증가하였다²⁵⁾고 했다.

<표-1> 칭짱철도 개통의 목적 및 의의

목적	주요내용 및 의의	비고
정치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화로운 사회건설(和諧社會建設) 실현 -서부지역 소수민족의 소외감 해소 및 위구르족 등의 불만을 통한 사회 안정 -티베트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한 티베트 독립운동의 원천적 저지 	칭짱철도 건설은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이 고려된 대규모 프로젝트
경제적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부대개발의 일환으로 서부개발 촉진 -중국내 물류시스템의 혁신과 경제발전 촉진 -중국내 지역균형발전 가시화, 빈부격차 완화 -티베트의 중화경제권으로의 편입 -‘친디아²⁶⁾ 경제권’ 구축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이 고려된 대규모 프로젝트

24) 김재기, “중국의 민족문제와 ‘서부대개발’: 정치경제적 배경과 딜레마”, 『한국동북아논총』 제18집 (한국동북아학회, 2001), p.154.

25) <http://www.tibet40.cn/> (검색일 : 2010.02.20).

군사적 목적	-인도와의 국경지역 안정 -동남아시아에 대한 교두보 확보로 영향력 강화
사회·문화적 목적	-한족의 티베트 유입 가속화 -중국 한족과 티베트인 간의 동질성 강화

자료: 원천식,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과 정책적 시사점: 칭짱철도 개통과 ‘킨디아경제권’ 형성을 중심으로” 『KIET 산업경제』 101호(산업연구원, 2007), p.52.

위와 같은 경제적 성장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면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 있었다. 티베트의 인구 밀집지구나 교통로 주변지역의 삼림 훼손 정도가 심각하여 그 피해면적이 321km²에 달했다. 그리고 목초지의 퇴화나 사막화 현상도 심각하여 퇴화 초지면적은 1,100여 km²로서 전체 초지면적의 13.6%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운데 사막화·석질화·저질화된 초지면적은 243km²로서 천연 초지면적의 3%에 달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토지의 사막화와 수자원·토질의 유실도 심각해져 티베트자치구의 사막화된 토지면적은 2,047km²로서 자치구 총 면적의 17%에 달해 있다. 이 과정에서 습지나 호수도 줄어들어 산초량(産草量)도 1,980km²내의 846kg/묘에서 최근에는 63kg/묘로 감소하였다. 채석·채광으로 대규모의 경지나 초지가 점용되었고, 각종 공장가동에 따른 공업용 고체 폐기물, 배기가스, 분진, 폐수의 배출, 및 그 주변지역의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환경훼손도 심각한 지경으로 되었다.²⁷⁾

26) 킨디아: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China)과 인도(India)의 합성어다.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05년도 세계경제를 전망한 ‘The world in 2005’에서 처음 사용했다. 중국과 인도는 풍부한 노동력과 가격경쟁력 등으로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할 것이라는 뜻으로 만들어낸 신조어이다.

27) 陣華, “試論西藏的人口與環境”, 『西藏大學學報』 第16卷 (2001.9), pp.30-31.

이와 같이 서부대개발로 환경훼손의 심각성은 초래했지만 반대 급부적으로 티베트를 비롯한 서부지역에 많은 경제적 발전을 가져왔다. 하지만 티베트인들은 왜 분리운동이라는 저항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중국정부와 티베트인 간의 ‘현실 인식의 차이’에서 출발한다. 첫째 티베트인의 시각에서 보면, 중앙정부 주도의 티베트 개발의 수혜자는 티베트족이 아닌 한족이고, 개발이 진행될수록 티베트족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진다. 따라서 티베트 개발은 한족과 티베트족 간의 민족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다. 티베트의 세금면제 혜택으로 인해 한족의 유입이 증대되었고, 라싸에서 관광수입을 올리는 상인들은 쓰촨(四川), 칭하이(青海)에서 온 한족이기 때문에 티베트족은 개발의 혜택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으로 상대적 빈곤 및 생활난을 겪게 된다.²⁸⁾ 이러한 서부대개발과 티베트의 개발이 현실인식의 차이로 오히려 티베트민족에게 불만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부대개발의 4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칭짱철도 또한 티베트민족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칭짱철도는 2006년 7월 완공되어 개통 당시 황취(黃菊) 국무원 부총리는 “칭짱철도는 서부대개발 전략의 중요한 실시 성과이자 칭하이성과 티베트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후진타오 중국국가 주석의 축사를 대독하였다. 한편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인들은 칭짱철도의 개통이 경제적 혜택은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개발정책을 비난하면서 칭짱철도는 문화적 학살수단이라고 했다.²⁹⁾ 칭짱철도 개통은 인도 및 러시아와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군대를 신속히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칭짱철도와 라싸 공항 개통으로 한족과 티베트족 간의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28) Dreyer, June Teufel,(2000), "The Potential for Instability in Minority Regions."

David shambaugh ed, Is China Unstable? Amonk: M.E Shape. pp.128-129.

이민자(2009), 앞의 논문, p.14.

29) 아브라함 루스트가르텐(2009), 앞의 책, p.269.

한족의 티베트 유입이 가속화되자 티베트의 전통 문화 및 자연 환경이 파괴되었고, 뛰어난 상술을 지닌 한족들의 개발이익 독식은 2008년 라싸 시위 때 한족 상점 방화, 한족의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공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2009년 현재 라싸는 오래된 전통적인 티베트인 지역과 한족 이주자들이 주도하는 상업거리(쇼핑몰, 나이트클럽 등)가 들어선 한족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다.³⁰⁾

3. 국외적 배경

1) 망명정부의 활동

1959년 티베트 라싸무장봉기 무렵 인도로 탈출한 달라이 라마와 그의 추종세력들은 티베트 독립을 위하여 다람살라에 티베트 망명정부를 수립하였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다음 <표-2>와 같이 세계 여러 국가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티베트 독립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망명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에 우호적인 국가들의 지원과 지지로 티베트의 인권이나 환경문제와 같은 인류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³¹⁾

30) 『China Daily』, 2009.03.17.

31) 이경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관한 연구 -대티베트 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p.62-63.

<표-2> 티베트 망명정부 현황

정부수반	달라이 라마
정부구성	선거제 내각과 국회 5년
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부: 종교·문화, 내무, 재정, 교육, 방위, 보건, 국제관계 등 - 3개 독립기구: 선거 사무서, 정부공직자 선임위원회, 심계서(감사원) - 12 해외 대표사무소(인도 뉴델리, 미국 뉴욕, 미국 워싱턴, 일본 도쿄, 영국 런던, 네팔 카트만두, 스위스 제네바, 러시아 모스크바, 헝가리 부다페스트, 프랑스 파리, 호주 대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델튼, 대만 타이페이)
입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티베트 국민대표의회: 총 46명 - 망명정부 소재지 30명(여성 최소 2명) - 닝마, 카규 등 5대 종파 각 2명 - 달라이 라마 직접임명 3명 - 미국·캐나다 거주민중 1명 - 유럽거주민중 2명
사법부	티베트 최고 사법위원회

자료: <http://www.xizang-zhiye.org/images/indu> 이경한,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에 관한 연구-대티베트 정책을 중심으로』 논문 p.62에서 재인용.

미국은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하고, 티베트가 망명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국(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묘히 이용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달라이 라마의 망명정부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한동안 티베트 독립 운동가들에게 외교적,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해왔다.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한 1950년 이후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는 티베트인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중국에 대한 파괴 및 게릴라 활동을 하도록 티베트인들을 훈련시켰다. 달라이 라마는 자신에게 씌워진 평화이미지를 유지하려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형 갈로 돈텡(Gyalo

Thondup)이 작전의 핵심에 있었다.³²⁾

그리고 1970년대 이후 국제 정세가 탈냉전 시기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티베트에 대한 지원은 간접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미국은 세계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면서 1987년 당시 레이건 미대통령이 인권에 관한 내용의 <국무부 세출승인법안(State Department Appropriation Bill)>을 비준하게 된다. 이 법안은 중국의 티베트 내 인권침해를 비난하고, 중국에게 모든 정치적 티베트인 수감자를 석방하도록 촉구하며, 대중국 무기판매를 티베트 내 인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대통령의 인식과 결부시키며, 티베트인 난민에게 장학금과 다른 원조를 허가했다. 이 법안을 미루어 보면 미국이 비록 티베트를 중국에서 분리된 국가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지난 과거의 미국 정책이 보인 파격을 참고해볼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미국이 티베트 독립을 인정할지 모른다는 중국의 두려움에는 무시할 수 없는 근거³³⁾가 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티베트 독립투쟁방식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변화하였다. 달라이 라마는 1978년, 1980년에 덩샤오핑의 망명정부에 대한 회유책으로 인해 중국 방문을 허락받았다. 중국정부는 달라이 라마와의 협상에서 티베트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허울 뿐인 직책을 내 주고 중국에 거주토록 하려는 계획이었다. 중국 측은 티베트인 다수가 자치구 밖에서 살아야 하는 제안을 하였다. 달라이 라마의 거부로 티베트 망명정부와 중국 측은 1984년 이후 대화는 중단이 됐다. 결국 달라이 라마는 중국이 성실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국제사회에 요청했다. 1987년 6월 미국 하원 의회는 중국의 1950년 ‘티베트 침략과 강점’을 비난했다.³⁴⁾ 그 여파로 달라이 라마는 1987년 9월 미 의회 인

32) 피터 시몬즈, “티베트 불교의 기묘한 정치학” (월간 말, 2000.7), p.172.

33) 폴 인그렘(2008), 앞의 책, p.221.

34) 토마스 레어드, 『달라이 라마가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 (웅진지식 하우스, 2008), p.435.

권위원회에서 그의 <5개조 평화안(Five Point Peace Plan)>을 항목별로 밝혔다. 이는 1987년 12월의 <티베트 법안> 최종안에 수용되었지만, 현재 중국에 의해 거절당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사건에 관한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북인도 다람살라의 티베트 망명정부와 재미(在美)티베트사무국은 다른 여러 티베트 단체와 힘을 모아 미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위해 엄청난 양의 문헌을 제공했다.³⁵⁾ 이와 같이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국의 티베트 불법 점령과 인권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알리고 티베트는 엄연한 독립국임을 호소하며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티베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1987년 9월 달라이 라마가 제시한 '5개조 평화안'은 ①티베트인의 인권을 존중, ②모든 정치범을 석방, ③티베트의 자연환경 보존요구, ④중국인들을 티베트에 이주시키는 방법 제고, ⑤티베트를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것³⁶⁾이다. 1년이 지난 후 달라이 라마는 1988년 6월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 유럽의회에서 중국에게 크게 양보하는 “중국-티베트 협상을 위한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여기서 중국이 티베트의 외교, 안보는 계속 책임을 지도록 하고 티베트는 통상, 교육, 문화, 종교, 관광, 과학, 스포츠 및 기타 비정치적 활동을 다루는 자신의 외교사무소를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은 지역평화회의와 국제협정을 통하여 비무장화와 중립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제한된 수의 군사시설을 유지할 수 있다³⁷⁾고 하였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의 5개조 평화안과 스트라스부르그 구상 등 2가지의 협상안이 모두 거부됨에 따라 티베트 라싸시민들에게는 중국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티베트인들의 중국에 대한 불만은 급기야 1989년 3월 5일 라싸에서 독립 유혈항쟁으로 이어졌다. 항쟁의 발단은 1959년에 있었던 1차 티베트 독립봉기 3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13명

35) 폴 인그렘(2008), 앞의 책, p.219.

36) <http://www.chinawatch.co.kr/> (검색일: 2010.02.28).

37) 정천구,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티베트민족독립운동”,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1호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2008), p.239.

의 승려와 비구니로부터 시작되어 1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참가하였다. 사태가 확산되자 중국 국무원은 3월 7일 라싸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는 중국 공산정권이 수립된 이래 39년 만의 첫 계엄령 발동이었다. 계엄령 발동 이후 사태는 진정되었다.³⁸⁾ 당시 중국공산당 자유파였던 자오쯔양(趙紫陽) 총서기관은 시위가 있더라도 부드럽게 대처하라고 후진타오에게 지시했다.(Jhon Tkacik 참고; 趙는 후진타오(胡錦濤)에게 티베트에서 ‘약으로 강을 극복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명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은 후진타오는 지시를 무시하고 수 만 병력을 티베트에 집결시켰다.³⁹⁾ 1989년 티베트의 계엄령하의 무력진압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시위 현장에서 계엄령을 진두지휘한 후진타오는 그 후 당내에서 신임을 얻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재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의 위치까지 올라있다.

2) 해외지원단체의 활동

티베트의 독립을 위하여 많은 티베트인들은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로는 티베트 청년당(TYC:Tibetan Youth Congress), 티베트 여성협회(TWA:Tibetan Women's Association), 티베트 독립운동(Tibetan Freedom Movement), 인권과 민주를 위한 티베트 중앙정부(Tibetan Centre for Human Right and Democracy) 등이 있다.

그 중 티베트 청년당은 전 세계에 70개의 지부를 두고 1만여 회원을 두고 있으며, 티베트의 완전독립을 요구하는 가장 중심적인 단체이다. 이 단체의 활동목적은 달라이 라마의 지도하에 티베트와 티베트인을 위해 봉사하고 티베트의 문화와 불교를 보존하고 향상시킨다. 그리고 티베트의 독립

38) <http://www.freetibet.org/> (검색일: 2010.02.28).

39) <http://www.freetibet.org/> (검색일: 2010.02.28).

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해외지원단체 중에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가장 적극적인 단체이다. 이 단체는 티베트의 침략과 인권탄압을 알리기 위해 해외에서도 시위활동을 주도하기도 하고 티베트의 전통, 문화, 풍습 등 보존활동을 하고 있다.⁴⁰⁾

국제 티베트 캠페인(ITC:International Campaign for Tibet)은 1988년에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티베트인들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중국과 티베트 사이에서 평화적으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⁴¹⁾

국제 티베트 독립운동(International Tibet Independence Movement)은 티베트 독립을 위한 활동과 티베트 망명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티베트의 불법적 점령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티베트의 독립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생성되는 (핵)폐기물이 티베트를 오염시키는 것을 우려, 환경문제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⁴²⁾

이와 같이 티베트 독립운동 단체들의 조직이나 규모는 작지만 이들의 활동무대가 국제사회이며, UN이나 국제 NGO와의 연대를 통해 티베트 문제, 중국의 인권탄압 등에 대하여 국제적 시각으로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들의 활동은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상호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미국 의회나 행정부와 그리고 유엔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활동과는 차이가 있다. 그것은 이들이 미국이나 국제기구의 중국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법률 통과나 재정지원이 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어 중국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⁴³⁾

티베트 독립지원단체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최전 세계 각국에서 성화

40) <http://www.tibetanyouthcongress.org/> (검색일: 2010.03.01).

41) <http://www.savebitet.org/> (검색일: 2010.03.01).

42) <http://www.rangzen.com> (검색일: 2010.03.01).

43) 김재기, 『중국-티베트 민족갈등의 정치적 동학-국내외적 집단요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p.112.

봉송이 진행될 때 방해공작을 주도하였다. 성화봉송의 방해 목적은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하는 것을 이용하여 중국의 티베트 인권탄압 등을 알리고, 티베트의 독립의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올림픽 성화봉송 역사상 유래 없이 티베트인들에 의해 올림픽 성화봉이 탈취당하고, 올림픽 성화가 꺼지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올림픽 성화는 베이징올림픽 주경기장에 도착하게 되지만, 국제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차후 올림픽 대회에서의 성화봉송은 재고하기로 했다. 티베트 해외독립지원단체가 성화봉송 기간 동안 행한 일련의 사건들이 국제사회에 티베트 독립의지를 표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다.

4. 전개과정

2007년 달라이 라마가 미국 방문 시에 “2008년은 관건이 해가 될 것이다. 베이징올림픽이 아마 티베트인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2008년 3월 티베트 라싸에서의 분리 독립시위를 그 때 이미 시사를 하였다. 티베트 망명정부로서는 올림픽이라는 공간을 활용하는데 실패한다면, 티베트의 비극적 운명은 더욱 더 깊어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 티베트 3·14사건의 계기가 되었던 티베트 망명정부가 소재한 다람살라에서 걸어서 티베트까지 가겠다는 티베트 청년회의(TYC) ‘대장정 시위(推進西藏運動)’가 3·14사건의 도화선을 만든 것이다.⁴⁴⁾

2008년 티베트의 반중국 시위는 1959년 티베트 독립운동 49주년이 되는 2008년 3월 10일 티베트 승려(수도승) 등 600여 명이 중국정부에 대한 항

44) <http://www.tibetanyouthcongress.org> (검색일: 2008.05.15).

의시위로 시작하여 3월 15일 쯘 라싸 도심 라모가아사원 인근에서 몇 명의 티베트 반정부 시위대가 중국공안과 충돌하면서 유혈사태로 번지게 되었다. 그 후 불어나기 시작한 시위대는 도로변에 있는 건물과 경찰차량 정부 청사에 돌을 던지며 불을 질렀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행인을 공격하여 도시 일대를 큰 혼란에 빠트렸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시위대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는 13명(2008년3월17일, 현재)이었으나 인도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시위과정에서 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월 15일 밤 중국공안군이 탱크와 차량 편으로 라싸 시내에 진입하였다. 중국당국은 공안 2,000여 명을 투입해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했고, 60여 명을 연행하였다. 중국 외교당국은 지난 며칠간 소수의 승려들이 라싸에서 어느 정도의 소요를 일으켰으며 지방정부와 사원의 노력으로 상황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⁴⁵⁾ 한편 중국정부가 라싸 일원에 계엄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계엄 상태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들은 라싸로 들어갈 수 없었다.⁴⁶⁾ 하지만 진압군의 노력으로 라싸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외국 기자와 외국인 관광객들의 라싸 출입을 허용하였다.

<표-3> 2008 티베트 관련 주요 사건일지

날짜	내 용
3월11일	Lhasa의 시위대 수백 명 체포
3월14일	Chutsang 수녀원 여승 등 시위
3월14일	Lhasa에서 격렬한 시위로 긴장 고조
3월14일	Amdo Labrang에서 격렬한 시위 발생
3월15일	간쑤성 Amdo와 Sangchu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 저항

45) 『연합뉴스』, 2008.03.16.
 46) 『경향신문』, 2008.03.16.

3월15일	UN에 티베트 저항 관련 사실 확인 요구
3월15일	Amdo Labrang에서 시위대 저항
3월16일	Amdo Ngaba의 Kirti 승려들 저항
3월16일	Ngaba에서 최소 7명 총격 사망
3월16일	Rebkong에서 시위대 저항
3월16일	Ngaba Kirti 수도원에서 8명의 시체 발견
3월16일	티베트 동부지역에서 학생 시위대 저항
3월16일	Lhasa에서 대규모 공권력 야간 침탈
3월17일	Marthang에서 40명의 중학생 체포
3월17일	Meldrogungkar and Phenpo Lhundup에서 산발적 시위 발생
3월17일	Amdo Mangra에서 시위대 저항
3월17일	간쑤성 Lanzhuo에서 대학생 시위대 저항
3월17일	Tsoe에서 티베트 학생 시위대 저항
3월17일	Amdo Golog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 저항
3월18일	Toelung Dechen에서 30명의 시위대 체포
3월18일	간쑤성 Kanlho에서 500명의 승려들 시위
3월18일	Lithang에서 새로운 형태의 체포와 구금이 발생
3월18일	Kardze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 저항
3월18일	Amdo 지역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 저항
3월18일	Kardze 시위에서 최소 3명 총격 사망
3월19일	간쑤성의 Kanlho에서 수백 명의 시위대 저항
3월19일	Achok Tsenyi와 Dzoge 수도원에서 시위대 증가 추세
3월20일	Ngaba에서 중학생 총격 사망
3월20일	티베트에서 시위대를 대량 체포 직면
3월21일	간쑤성에서 티베트인들에게 항복에 대한 최후통첩 공고
3월23일	칭하이성 Chentsa에서 수백 명 시위
3월24일	Drango 시위에서 총격으로 1명 사망, 1명 중태
3월25일	티베트에서 79명 사망, 1,200명 이상 체포, 100명 이상 실종
3월26일	Drango에서 사망자 추도대회 이후 저항 발생
3월27일	타운쉽 모임에서 여 노인 무차별 폭행

3월28일	Kirti 수도원에서 100명 이상의 승려들 체포
4월 1일	Kirti 수도원에서 이틀에 걸쳐 572명 이상의 승려들 체포
4월 3일	쓰촨성의 Sertha와 Kardze 지역에 중국군 수만 명 배치
4월 3일	Tsolho에서 티베트인 기도 행진
4월 4일	Tawu에서 여승들 최근의 탄압에 대한 기도회 개최
4월 4일	Amdo의 Ngaba에서 2명의 승려 자살
4월 5일	Kardze와 Tongkor 수도원에서 최소 8명 총격 사망
4월 5일	티베트에서만 2,300명 이상의 티베트인 체포
4월 9일	고문당한 승려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방치
4월 9일	Ramoche 사원의 70여 명의 승려들 야간 침입에 항의
4월14일	Drepung 수도원의 승려들 애국적 재교육 캠페인에 저항
4월15일	Kardze에서 종교지도자 Geshe Sonam Phuntsok 사망
4월17일	중국군과 경찰에 의해 총격 사망한 티베트인 사진 공개
4월17일	Rebkong에서 티베트인 100여 명 이상 체포
4월17일	Taktasang Lhamo Kirti 수도 학교 폐쇄
4월18일	Rong Gonchen 수도원 전임 원장 위독 상태
4월24일	중국정부 '애국적 재교육' 전 티베트에서 착수
4월25일	관첸 라마 가택구금에서 19번째 생일 보냄
4월29일	Amdo에서 티베트 유목민 총격 사망, 수백 명 체포
4월29일	형식적이고 신속한 재판으로 17명의 티베트인 감금
5월 2일	Penpo에서 고문으로 티베트인 사망
5월 3일	티베트 대중 항쟁에 대한 법적 논쟁 제기
5월 5일	티베트 여성 고문으로 사망
5월 9일	Ngaba Kirti 수도원의 달라이 라마 초상화 파손
5월 9일	Chushul에서 32명의 승려 구금
5월 9일	Xiahe의 미디어 투어에서 저항하던 승려들 실종
5월15일	16명의 승려 재교육 명목으로 체포
5월17일	55명의 여승 체포
5월17일	Kardze에서 여승 2명 구금

5월19일	Lhasa에서 최근 학살 증언
5월19일	Kardze에서 대중 종교인 구속
5월21일	Kardze에서 3명의 여승 구속
5월22일	Kardze에서 2명의 젊은 승려 구속
5월26일	평화행진하는 2명의 여승 고문과 구속
5월26일	Kardze에서 4명의 여승 구속
5월29일	Kardze에서 평화행진에 총격
5월31일	승려 12명 재교육 명목으로 구속

자료: <http://www.tchrd.org/> 이재호, 『중국의 티베트 분리독립에 대한 대응정책』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p.43-44.

중국정부는 분리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 이번 3·14사건도 시위자와 일반대중을 분리시키고 티베트 안정을 위하여 초기부터 강경진압을 시도하였다. 즉 “정확한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인민대중들이 사실과 진상을 조속히 이해하도록 하여 적대세력의 죄악을 노출시키기 위해 철과 같이 단단한 사실로 반격하자.”⁴⁷⁾는 구호 하에 3·14사건을 진압하였다.

이러한 진압의 배경에는 티베트 내부의 노선갈등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3·14사건의 성격을 읽었기 때문이다. 우선 3·14사건은 자연발생적이고 무정형적인 독립시위가 아니라 티베트문제를 국제화시키면서 중국을 협상태이블로 끌어내려고 했던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티베트 청년회의 등의 근본주의자와 비폭력을 주장하는 달라이 라마의 망명정부 주류와의 투쟁방식에 간극이 나타났던 것이다. 실제로 달라이 라마측은 일관되게 독립 보다는 진정한 자치를 주장하고 티베트인들이 울립

47) 『조선일보』, 2008.03.18.

픽과 티베트문제를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폭력을 수반한 시위 배후에 자신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대화를 열어놓았다.⁴⁸⁾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보다는 ‘인민전쟁론’을 통해 해결하였다. 중국공산당 서장자치구 당위원회는 3월 15일 장칭리(張慶黎) 서기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티베트의 질서회복을 위한 ‘인민전쟁’을 선언하고 달라이 라마 지원세력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이에 앞서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9명도 3월 1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 직후 긴급회의를 갖고 티베트 사태 수습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⁴⁹⁾

2008년 라싸에서 일어난 시위는 공권력이 투입되어 바로 진압이 되었지만, 라싸시에서 전개되던 시위는 캄과 압도 지방을 비롯한 비도시지역으로 폭넓게 확산되었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4월에 집계한 시위발생지역 50여 곳 중 80% 이상이 이 지역들이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시위에도 무력진압을 하여, 2008년 4월말 티베트 망명정부는 최소 200명이 사망하고 4천 명이 구금되었다고 집계하였다. 라싸 중급 인민법원은 라싸 시위에 참여했던 42명에 대한 재판을 열어 이 중 30명에 대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의 중형을 선고했다.⁵⁰⁾ 이와 달리 중국정부의 3·14사건 발생 1년 후의 발표에는 사망자 수는 22명이고 76명이 구속되었다⁵¹⁾고 했다. 그리고 대만 주재 티베트 망명정부 대표의 2008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 의하면, “티베트인 동조시위는 지속되고 있으며, 쓰촨(四川)에서만 3~5명이 사망하고 천여명의 티베트인이 체포되었다. 시위 촉발원인은 달라이 라마 인정 금지 등 신앙 탄압, 티베트 문화와 언어 탄압, 민족 생존에 대한 위기감 등이다.”라고 밝

48) 이희옥, “티베트 자치문제의 지속과 변화: 3.14사건 분석을 위한 시론”, 『중국학연구』 제45집 (중국학연구회, 2008), p.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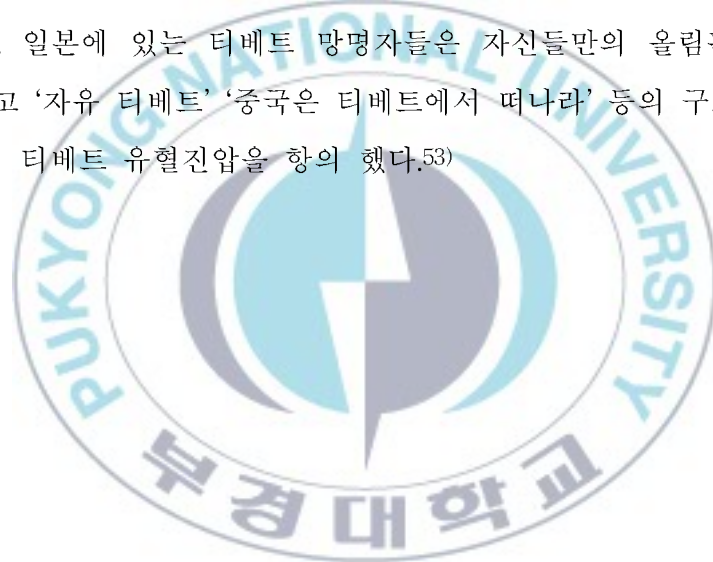
49) 『시사매거진』, 2008.04.25.

50) 김재원(2009), 앞의 논문, p.69.

51) 『연합뉴스』, 2009.03.15.

했다.⁵²⁾

한편 이번 시위는 라싸를 넘어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와 인도 뉴델리, 호주 시드니 등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는 3월 14일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40~50명이 “티베트를 독립시켜라,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고, 호주에서는 15일 시드니 주재 중국 총영사관 밖에서 티베트 독립지지 시위가 열렸다. 네팔 카트만두에서도 같은 날 승려 수십 명을 포함한 약 1,000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다 승려 12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또한 15일 인도에서는 망명 티베트인 10여명이 히미찰프라데시주 데라에서 행진을 하기도 했다. 일본에 있는 티베트 망명자들은 자신들만의 올림픽 성화봉송 행사를 열고 ‘자유 티베트’ ‘중국은 티베트에서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국정부의 티베트 유혈진압을 항의 했다.⁵³⁾



52) 『The Wall Street Journal』, 2008.03.21.

53) 김재기, “티베트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중국의 대응: 2008년 3월 유혈분쟁과 북경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55집 (한국동북아학회, 2010), p.82.

제3장 3·14사건 이후 중국정부 및 티베트민족의 대응

1. 3·14사건 이후 중국정부의 대응

1) 중국정부의 대내외적 대응

중국정부는 다민족국가로서 민족단결에 반하는 민족분열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지난 2008년 티베트 등에서 발생한 3·14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응하였다. 국제사회의 3·14사건 무력진압에 대한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마무리 되어 가는 2008년 3월 24일 티베트자치구 라싸에서 제5차 민족단결표창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서 155개 직장단위와 237명이 표창을 수여 받았다. 이 대회에서는 그 동안 격한 혼란 속에서도 온전히 3·14사건을 진압하고, 올림픽 성화봉송로를 어려움 없이 확보하고 많은 단체와 개인이 진취적인 민족단결의 모습으로 민족분열 행위를 차단하였으며, 조국통일을 수호하고 사회경제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치사하였다. 그리고 티베트자치구에는 90%의 티베트족과 그 외 10여 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티베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족간의 관계이다. 그래서 중공 티베트자치구 당위서기 장칭리(張慶黎)는 이 표창대회에서 근래 티베트민족 관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조화로운 사회와 민족융합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다.⁵⁴⁾

3·14사건 당시 제목만 조금씩 다를 뿐 대부분 신화통신의 기사를 그대로 받아쓰는 중국 언론들은 ‘티베트는 원래 중국의 일부이며, 달라이 라마는 종교인의 탈을 쓴 정치 부랑자’⁵⁵⁾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티베트는 불가

54) <http://gb.cri.cn> (검색일: 2008.10.24).

55) 『조선일보』, 2008.04.11.

분의 중국 영토' '달라이 라마 집단이 국가 분열 주도' 등 다소 선정적인 보도⁵⁶⁾를 하였다.

2008년 티베트 사건 후 중국정부의 언론통제는 더욱 엄격해졌다. 한 예로 파이낸셜 타임스(FT)에 “티베트 진상과 민족주의 정서”라는 제목 하에 티베트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의견을 개진했다가 「남방주간(南方週刊)」의 장핑(張平) 부총편집장이 직위해제 당했다. 기고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티베트 사태가 발생한 후 소문만 있을 뿐 중국 내 언론은 침묵하고 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중국 언론은 침묵하고 외국 매체는 왜곡한다면 진실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외국인이 아는 것은 정부가 현장을 봉쇄한 후 일률적으로 발표한 내용에 불과하다. 나는 이게 거짓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지만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도 없다.”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올려진 후 네티즌은 ‘티베트 독립분자의 주장과 유사하다’며 매국노라고 집단 성토했다.⁵⁷⁾

중국일보 인터넷뉴스에서는 전 인민들이 주목하는 전국양회가 개최되는 기간이며, 전국 인민들이 기대하는 북경올림픽이 다가오는 2008년 3월 10일 경 달라이 라마 집단이 치밀한 선동 계획 하에 극소수의 불순분자들이 라싸에서 폭력과 파괴행위로 인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혀 사회질서와 안정에 대해 극심한 피해를 가져왔다고 보도하였다. 달라이 라마 집단의 이러한 행동의 목적은 티베트에 있는 중국공산당 자체를 뒤엎고, 사회주의를 전복하고 민족구역자치제도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야만적이고 잔혹한 봉건농노제로 회귀하려는 의도이고, 나아가 중국의 기타 변강민족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사회주의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맞선 반분열투쟁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중국인민의 열정적 사상이념을 재인식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

56) 『뉴시스』, 2008.04.28.

57) 이민자(2009), 앞의 논문, p.36.

요한 문제⁵⁸⁾라고 강조하였다.

강성한 중국정부도 3·14사건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한편으로 의식하였다. 그러므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하고, 흐트러진 티베트 민심과 복잡해진 달라이 라마 측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2008년 5월 4일 선진 지린산장에서 주에이첸(朱維群) 중국공산당 통일전선부 상무부부장과 쓰타(斯塔) 부부장은 달라이 라마의 특사 로디 기알첸 기아리(Lodi Gyaltsen Gyari), 켈상 키알첸(Kelsang Gyaltsen)과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였다. 하지만 양측은 티베트 사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합의하는데 그쳤다. 삼동 린포체(Ssmdhong Rinpoche) 티베트 망명정부 총리는 “애초 이번 회담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기대하진 않았다.”며 “그러나 양측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대표는 “중국정부가 라싸 사태에 대해 취한 모든 조치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달라이 라마를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차기 협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활동과 폭력을 획책·선동하는 행위, 베이징올림픽을 파괴하려는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⁵⁹⁾

3·14사건을 무력진압한 중국정부에 대하여 서방국가들은 비판과 함께 베이징올림픽 불참을 선언하며 중국정부를 비난하고 티베트 문제를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였다. 서방국가들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중국정부는 내정간섭이라고 하며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도 달라이 라마 측과 대화할 것을 시사하였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008년 4월 12일 보아오 포럼 개막식에서 “서로의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고 정치적 상호신뢰와 상호이익의 기반에서 새로운 안보관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⁶⁰⁾ 후 주석은 이날 개막식 연설을 통해 “중국은 평

58) <http://www.chinadaily.com.cn> (검색일: 2010.10.04).

59) 『한겨레신문』, 2008.05.05.

화 발전의 길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중국정부와 인민의 전략적 선택”이라면서 “이런 전략적 결정은 중국의 국가 상황에 입각, 시대조류에 따라 중국의 대내 정책과 대외 정책의 통일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티베트 유혈사태로 국제적 비난이 비등하고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후 주석의 우회적인 반발로 해석된다.

후진타오 주석은 보아오 포럼에 참석한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와 달라이 라마 집단과의 갈등은 민족 문제도, 종교 문제도 아니며 인권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티베트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후 주석은 “티베트 라싸 등지에서 발생한 사건은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평화 시위도, 비폭력 행동도 아니며 적나라한 폭력 범죄”라면서 “티베트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에 속하며 조국의 통일과 분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후 주석이 티베트 시위사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⁶¹⁾

한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08년 12월 중국 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달라이 라마를 회견하며 대결구도로 치달았던 중-프의 불편한 외교관계중에서 중국과 프랑스 외교부가 2009년 4월 1일 갑작스러운 ‘프레스 코뮈니케(외교상의 공식성명)’를 발표했다. 코뮈니케 내용은 티베트 독립 반대를 포함한 내정 불간섭 천명이 주를 이뤘다. 코뮈니케에 따르면 “양측은 전략적·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상호존중 및 상호호혜의 기본원칙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프 양국은 UN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내정 불간섭’원칙을 지지한다고 재천명했다.⁶²⁾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승리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성장의 토대로 달라진 외교파위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으로 국제사회도 중

60) 『연합뉴스』, 2008.04.12.

61) 김재기(2010), 앞의 논문, p.87.

62) 『조선일보』, 2009.04.02.

국의 제고된 위상을 다시 한 번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2) 언어, 행정, 종교정책 등에 대한 임시적 조치

2009년 3월, 티베트 봉기 50주년과 3·14사건 발생 1주년을 맞으면서 티베트의 안정을 위해 후진타오 주석은 티베트자치구 출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들과 대화를 나눴다. 후 주석은 “티베트는 분열주의에 반대해 싸우고 조국통일을 유지하기 위한 견고한 장성을 쌓아야 하며 그래야만 티베트의 장기적인 안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티베트자치구는 티베트의 발전과 안정, 경제성장 달성, 국가안전과 티베트 사회 안정 확보를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정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티베트는 새로운 사회주의 티베트를 건설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특색과 티베트의 특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⁶³⁾

티베트 라싸에서 3·14사건 발생 1주년을 맞았을 때 또 다시 티베트인들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긴장감만이 있었을 뿐 대체적으로 평온한 상태에서 3·14사건 1주년을 보냈다. 사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그 사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중국정부는 티베트나 기타 소수민족에 대해서 깊은 정책적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부분에 있어서 변화된 임시적 조치는 보이기 시작했다.

63) 『연합뉴스』, 2009.03.09.

<표-4> 3·14사건 전·후 임시대응조치 비교

	3·14사건 전	3·14사건 후
언어관련조치	표면적, 단순적 이중언어 활성화 및 티베트어 억제책	이중언어활성화로 민족자부심 고취, 민족정책 효율적 선전교육,인민일보 티베트판개설과 티베트어라디오 방송국 개국
민족단결교육 관련조치	민족단결교육은 정치과목의 일부분에 포함	‘민족단결’과목 신설 강화, 고교 대학 입학시험에 15%반영
시위진압관련 조치	시위·소요사태시 병력동원 여부 지방정부 단독결정	병력동원시 중앙정부 비준 필요
종교관련조치	종교의 자유정책, 달라이 라마 중앙정부가 선임 결정함	종교활동억제책으로 등록제 추진, 달라이 라마 선임권 재천명

먼저 이중언어교육에 대해서는 앞서 민족정책에 대한 불만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티베트어 교육은 점진적으로 후퇴하고 중국어 교육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티베트어의 사용 억제책이 오히려 티베트인들에게 중국정부에 대한 반발감과 자극하게 하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정부의 티베트 언어정책의 조치로써 티베트판 인민일보를 2009년 8월1일자로 발행하게 하였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소수민족 언어로 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민일보 인터넷 판에서도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소수민족 언어는 없다. 매일 4면 발행되는 이 신문은 티베트자치구는 물론

인근 쓰촨, 윈난, 칭하이, 간쑤 등 티베트족 밀집지역에서도 발행된다. 중국 정부는 또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위구르어와 중국 보통화(普通話) 등 2개 언어를 가르치는 유치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⁶⁴⁾을 세웠다.

2010년 5월 1일에는 라싸인민라디오방송을 개국, 티베트어와 중국어 2개 언어로 방송하게 하였다. 이 방송국의 개국은 중국당국이 티베트 지역에 대한 문화통치를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다. 티베트족인 뽀오지츠주(多吉次珠) 라싸 시장은 개국식 연설을 통해 “라싸는 반(反)티베트분열 투쟁의 전진기지로 라싸의 안정은 티베트 전 지역 안정에 관건”이라면서 “라싸인민라디오방송은 안정 유지, 분열 반대, 발전 촉진과 당·정부의 목소리를 인민 대중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사명을 어깨에 짊어졌다.”고 강조했다.⁶⁵⁾

그리고 중국정부는 그 동안 소수민족의 시위에 대하여 이루어졌던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을 제지하기 위해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09년 8월 24일 제 10차 회의를 열어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함부로 무장경찰을 시위진압 등에 동원할 수 없게끔 ‘인민무장경찰법’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차 독회를 거쳐 인민무장법안은 무장경찰의 임무, 동원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정부가 인민무장경찰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2008년 티베트 3·14사건과 2009년 신장위구르 7·5사태⁶⁶⁾ 등을 계기로 각종 소요사태에 대비해 무장경찰 동원 목적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성과 직할시, 자치구는 물론 현, 시, 자치주 등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 무장경찰을 시위진압과 소요사태 등에 동원할

64) 『세계일보』, 2009.08.02.

65) 『세계일보』, 2010.05.02.

66) 7·5사태: 2009년 7월 5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수도 우루무치에서 위구르족의 불평 등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작된 시위는 한족과 충돌하며 유혈사태로 이어져 197명이 사망하고 1,700여 명이 부상한 사건으로 당중앙과 국무원의 강력한 인도 하에 신장 웨이우얼(維吾爾)자치구 당위원회와 정부는 무력진압으로 사태를 평정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한번 비난을 받은 사건이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무장경찰을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비준한 구체적인 절차에 따라 동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들이 시위나 폭력사태가 발생하면 독단적으로 무장경찰을 동원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들이 주민들의 단순시위나 노사분규 등에도 무분별하게 무장병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이와 함께 전인대 상무위는 공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강제법’ 제정안도 심의하고 있다⁶⁷⁾고 밝혔다.

그리고 “인민무장경찰법”은 2009년 8월 27일 출범되어 실시되었다. 이 법률은 무장경찰이 안전보위와 위협구조, 재해구제과업을 집행하는데 대해 규범화하고 균체적인 엄중한 폭력범죄사건을 처리하는 무장경찰의 직책을 명확히 했다. 이 법률에 따라 무장경찰부대가 집행하는 안전보위과업에는 폭란과 소란, 대규모적인 엄중한 폭력범죄사건, 테러습격사건, 기타 사회치안사건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중요한 공공시설과 중요한 통신중추, 주요한 교통간선,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량, 터널 등이 모두 무장경찰안전보위범위에 있다. 이 법률은 무장경찰은 비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며 비합법적으로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⁶⁸⁾

그 동안 지방정부가 지나치게 무장경찰병력 동원을 남용함으로써 민족 간의 위화감과 반발감이 조성되어 단순시위사건이 확대되면서 유혈폭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므로 중국정부는 ‘인민무장경찰법’과 ‘행정강제법’의 제정으로 지방정부의 권력을 축소, 통제하여 단순시위사건 등이 반정부적 유혈폭력·소요사태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티베트인들의 특수성과 결속력을 다지게 하는 종교에 대해서는 압박의 수위를 높혀 갔다. 티베트인의 종교활동 억제를 하기 위하여 모든 중

67) 『조선일보』, 2009.08.25.

68) <http://www.chinaemb.or.kr> (검색일: 2010.11.07).

교활동에 대해 등록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티베트자치구 주석에는 親漢계열인 바이마즈린(白瑪赤林) 상무부주석이 선출됐다. 티베트족으로 티베트자치구 덩칭(丁靑)현이 고향인 바이마 주석은 3·14사건 당시 피의 진압을 주도했으며, 사건의 배후에 달라이 라마가 있다고 비난한 강경파이다.⁶⁹⁾ 위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 중국정부 당국은 종교적 일면에서는 티베트를 더욱 옥죄기를 강화하는 면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의 헌법 제36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누구나 종교신앙의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 혹은 기관도 공민으로 하여금 강제로 종교를 믿게 할 수도 없고, 종교를 포기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종교로 인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⁷⁰⁾고 되어 있다. 현재 티베트인들에게는 거의 절대적 존재가 되어버린 달라이 라마는 중국 정부로서도 지속적으로 그의 위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이미 2007년 7월 13일 ‘티베트 불교 활불계승 관리방법(藏傳佛教活佛轉世管理辦法)’을 만들어 같은 달 18일 공포한 뒤 9월 1일부터 시행⁷¹⁾하여 중국정부가 직접 활불을 비준하고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재의 달라이 라마의 위상을 약화시키며 티베트 불교를 압박해 왔다. 그리고 2010년 3월 7일 티베트자치구의 바이마즈린(白瑪赤林)은 “장래, 티베트 불교의 최고 지도자 달라이 라마는 중앙정부가 지명할 것”⁷²⁾이라고 재천명하였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및 “안팎의 분리주의자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티베트 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중국의 종교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종교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에 ‘티베트 사원 관리정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게재해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

69) 『세계일보』, 2010.01.18.

70) 『中國人民共和國憲法』.

71) 『人民日報』, 2007.09.03.

72) 『人民日報』, 2010.03.09.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종교사무국은 공문에서 일부 사원의 승려들이 “안팎의 분리주의자 세력”에 영향을 받아 국가분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티베트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도록 달라이 라마 추종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 엄격한 관리는 티베트 불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⁷³⁾ 이러한 중국정부의 조치들은 3·14사건 이후부터 구상되기 시작하여 유화와 강화를 병행하면서 정책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종교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외세 영향과 “분리주의자들의 활동”에 대응하고, 한편으로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을 견제하고 방해할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 3·14사건을 계기로 티베트와 소수민족에 대하여 언어와 행정, 종교정책 등에서 변화된 임시적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민족단결교육의 강화

중국정부는 티베트의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민족단결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그의 일환으로 청소년사상교육을 강화시켰다. 이것은 당과 국가가 정책입안, 건설한 발전을 확립하고, 티베트의 안정을 확보하여, 국가안전의 중요성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질적인 청소년의 사상도덕교육 강화로 반분열투쟁의 기초에 큰 몫을 하고 있고, 사상적으로 반분열투쟁의 강철같은 장성을 쌓고 사회주의 양성에 노력하면 새로운 티베트 건설의 역군과 계승자가 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청소년의 사상교육이 틀림없이 두터운 층을 이루며 자리 잡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 청소년의 사상교육 수준

73) 『人民日報』, 2010.10.11.

을 높이고 성공하려면,

㉠ 인재양성에 힘쓰고 도덕교육을 우선시 하에 고도의 대학생 정치사상 교육과 중·고등학생 도덕사상에 힘써야 한다. 티베트에 있는 청소년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에게 분열반대와 조국통일과 민족단결을 지킬 수 있게 하고 애국주의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애국주의를 양성하는 핵심요소는 단결과 통일, 평화를 사랑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위대한 민족정신을 이어가고 확고한 사상 신념을 세우고, 보다 나은 도덕품격과 지적인 면모를 갖게 해야 한다.

그 첫째로 <중공중앙국무원은 진일보한 미성년자 사상교육 강화에 대한 의견>을 심혈을 기울여 내놓았는데, 거기에는 티베트자치구 미성년자 사상 교육에 전력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에게 중국역사 특히, 근대사의 학습을 강화하고 중화민족의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문화의 우수성과 귀속감을 전면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심도있게 달라이 라마 집단의 정치적인 반동성, 종교적 허위성과 수단적인 기만성을 교육하여 분열을 반대하고 조국통일과 민족단결을 수호해야 하는 결연함을 가지게 해야 한다.

둘째 마르크스의 “사관(四觀)” “양론(兩論)”⁷⁴⁾ 교육을 중점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 조국관의 “사관(四觀)”에서 교육은 핵심위치를 차지하고 기타 “삼관(三觀)”의 중요성은 기본 전제가 된다. 만약 조국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마르크스주의의 민족관, 종교관, 문화관을 확립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명확한 마르크스주의 민족관, 종교관, 문화관을 확립하려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명확한 마르크스주의의 조국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분열과 반분열투쟁 중에서 조국통일과 민족단결을 지켜낼 수 있다. 그리고 달라이 라마 집단의 분열과 파괴행위를 스스로 저지할 수 있을 것

74) 양론(兩論): 마오쩌둥이 1937년 저술한 실천론과 모순론을 말하며, 중국공산당 내의 교조주의 사상을 극복하기 위해 쓴 책이다.

이고, 고도의 책임 있는 애국주의의 열정이 생겨나고, 티베트의 사회주의의 현대화 건설에 힘써 중국은 물론 티베트의 경제발전과 진일보된 사회를 이룩해 낼 것이다.

㉔ 티베트자치구의 각급 학교마다 민족단결 교육을 유지하고 행하는 것은 전체학생의 도덕교육과 애국주의 교육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교육수준과 정도가 서로 다른 학생, 신입학생들도 일정 규범을 따라야 한다. 1993년 국가교육위의 <초등학교교육 요강>에 초등학교생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중국은 다민족국가이고, 각 민족은 상호 존중하고, 평등하며 완성된 통일조국의 대과업을 만드는 것이 각 민족의 공동염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1995년 국가교육위는 또 <중·고등학교 도덕교육 요강>에 중학생에게는: “조국의 판도와 산하, 언어문자,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와 유명한 민족영웅, 애국지사, 혁명선열, 문화명인의 교육, 각 민족을 존중하고 진일보된 민족단결교육을 요구하였다.” 고등학생에게는: “민족단결, 민족분열반대 교육”을 강조하였다. 1995년 국가교육위 <중국고등교육의 도덕 요강(시행)>의 도덕 내용에도 민족단결 교육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1992년 국가교육위, 국가인민위의 <민족교육업무에 관한 문제의 의견>에는 민족단결과 민족정책교육의 주요 내용 4개항목이 있다. 즉 마르크스 민족이론과 당의 민족정책의 교육, 그리고 민족평등 단결교육, 상호협력과 민족차별을 반대하는 교육, 무신론과 과학세계관의 교육을 진행하고 민족분열을 반대하는 교육이다. 국가교육위는 1987년에 <각급 학교에서는 당의 민족정책과 민족단결교육의 이념을 주의 깊게 진행할 것>과 소수 민족지역의 중등이상 학교에서는 당의 민족정책과 민족문제의 기본이론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명확한 민족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2004년 교육부는 <중공중앙 국무원이 진일보하여 미성년자의 도덕 건설을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을 실현시키기 위해 민족정

신교육을 육성 발전시키고, 초·중등학교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의 발전과 민족정신 교육실시 요강>을 제정, 제출하였다. 이러한 것을 제정, 제출한 것은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국가이며 민족평등, 민족단결과 각 민족 공동번영을 함께하고 중국이 민족관계를 굳건히 정립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정부는 국가주권과 영토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 국민된 기본의무이고 완성된 조국통일의 대업이며 중화민족의 3대 역사적 임무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그 중에는 민족단결과 국가통일을 유지하고 민족분열을 반대하고, 다함께 조국분열행위와 투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민족단결과 교육을 최선의 방법으로 전개한다면 조국통일과 민족단결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라 하였다.⁷⁵⁾

그리고 그 동안 소수민족 학생들이 한족 학생들 보다 다소 불리한 교육 환경에 처한 것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소수민족과 티베트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중국 교육부는 <소수민족인재양성계획의 실시의견>{교민[2005]11호}을 근거로 2011년에는 티베트자치구에서 ‘소수민족인재양성계획’을 2010년 10월 15일 티베트자치구에서 모집요강을 공포하였다. 모집요강 규정을 보면 첫째 중국공산당 지도 방침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체도를 지지하며, 국가통일과 민족단결을 유지하고, 티베트건설을 위해 일해야 한다. 둘째 졸업 후에는 티베트자치구내에 취업을 보장한다. 그 중 타 지역 지원학생이 타 지역에 취업을 원하여도 취업을 보장한다. 셋째는 일반적인 사안으로 국가가 승인한 대학교 졸업생, 만40세 이하, 신체조건 등이 적합한 사람만이 지원이 가능하다⁷⁶⁾고 했다.

티베트의 현대화 건설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사회면모가 완전히 뒤바뀌었으며, 인권사업은 전세계인들이 주목할 만한 큰 발전

75) <http://news.xinhuanet.com> (검색일: 2010.08.20).

76) <http://www.xizang.gov.cn> (검색일: 2010.11.07).

을 가져왔다. 그리고 <국무원 민족교육의 결정에 관해서 개혁을 심화시키고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교육부행정 부서, 국가민위행정 부서의 <학교민족단결교육 지도개요(시행)>에 관한 통지서를 배포하여 정신무장을 구체화하였으며, 난징시 교육체계는 끊임없이 확실하게 초·중등학교 민족단결교육을 중요한 정치임무로 여기고 인식시켰다. 그리고 “다섯개 중 하나”의 작업패턴 방식으로: 자세한 시행방안의 통일된 지도의식, 실험내용, 실험대상과 실험요구를 작성하였으며, 많은 시행 기관에 확실하게 공고하였다. 초등학교는 민족상식교육으로 사상, 사회과목을 채택하였으며, 중학교는 민족정치로 사상정치과목을 채택하여 학년마다 8시간 보충한 교육특색을 만들어 초·중등학교의 민족단결교육을 추진하게 하였다.⁷⁷⁾

2010년 8월 19일 교육부는 청두(成都)에 티베트고등반과 신장(新疆)고등반에 학생을 추가모집하여 티베트중직반(內地西藏中職班)으로 만들어 업무 배치회의를 열었다. 교육부 부장인 루쥘(魯昕)은 회의에 참석하여 티베트고등반과 신장고등반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두드러진 성적을 얻었다고 찬사를 하였다. 그는 이들 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은 확정된 티베트, 신장경제사회의 두드러진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 각 민족 간의 긴밀하게 단결을 촉진하고 국가의 사회 질서가 장기간 안정되고 평온하게 유지해야 할 중대한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또 루쥘은 민족단결을 수호하고 국가통일 의지의 확고함을 강조하였다. 티베트, 신장교육사업의 성장된 발전의 중요성, 시급성과 어려움을 조속히 인식하여 사상을 자체적으로 중앙위원회, 국무원의 정책과 배치에 통일시켜 강한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티베트반, 신장반과 중직반은 학교의 운영업무를 잘 수행하면 티베트, 신장은 보다 나은 발전이 실현되고 사회질서가 지속적으로 안정이 되고 조국통일

77) <http://www.jlxx.org> (검색일: 2010.12.15).

과 국가안전에 대하여 충분한 공헌을 할 것이라 했다.

또한 루쥘은 현재 내지학교(內地學校)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5가지 업무를 중요시하여야 한다고 했다. 첫째 “하나의 근본”을 부각시키는 것으로 학생은 정치적으로 확신을 갖게 하며, 진정한 재능과 건실한 학문을 가지는 훌륭한 인재로 배양해야 한다. 둘째 “두개의 우선”을 고수해야 한다. 우선 애국주의와 민족단결교육을 강화하고, 교사 집단의 업무를 건설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교육지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넷째 8가지 보장조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작업제도와 관리 메커니즘 개선을 확립하는 것이다. 루쥘은 각 성(省)과 도시 교육관리부와 반을 만들어 학교는 진지하게 중앙의 통일배치에 따라주기를 바라며, 건실하게 내륙티베트, 신장고등반을 늘려서 모집하는 임무와 내지티베트중직반 개설업무를 잘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민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다재다능한 인재 양성의 장소가 되게 만들어 민족단결을 증진시키고 국가통일의 강화를 일선에서 교육하고 지키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또한 티베트와 신장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질서가 안정되고 평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중화민족의 강한 응집력을 키우고 소강사회⁷⁸⁾로 가는데 크나 큰 공헌을 했다고 하였

78) 소강사회(小康社會): 1979년 12월 6일 덩샤오핑(鄧小平)이 당시 일본수상 오히라(大平正芳)의 방문시 제시한 용어로 ‘온포(溫飽: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단계)’에서 부유한 단계의 중간 단계의 생활수준을 지칭함. 당시 덩샤오핑은 중국현대화의 목표로 소강상태(小康狀態)를 제기하였으며, 20세기 말까지 1인당 GDP USD 800을 달성하여 소강사회를 실현할 것이라면서 소강사회는 중국식의 현대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민의 생활수준의 개념을 넘어 경제사회 발전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소강사회는 경제발전, 민주적 정치, 문화 번영, 조화로운 사회, 아름다운 환경, 윤택한 생활, 풍요로운 삶, 국력신장 등 경제, 정치, 문화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사회를 말하며 민족 부흥을 향한 사회 발전 단계라고 밝혔다. 이후 덩샤오핑은 소강사회 발전 건설의 청사진과 21세기 소강사회의 발전전략, 즉 삼보주(三步走:3단계) 전략을 제시했으며 1997년 장쩌민(江澤民)은 제1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소강사회 건설의 새로운 임무를 제기했고 21세기 들어 전면적인 소강사회로 진입하면서 새로운 단계의 사회주의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제16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면적인 소강사회는 중국 현대화 건설의 세 번째 단계의 전략적 목표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다.⁷⁹⁾

후진타오 주석은 이에 앞서 중국 산시성 시옌양(咸陽)에 위치한 티베트 민족학원 개교 50주년을 기념하여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에는 3·14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건을 의식하여 특별히 학생들에게 애국과 티베트의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의 메시지 내용을 보면, “티베트민족학원은 티베트평화해방 후에 중앙내지에서는 첫 번째로 설립한 단과대학과 종합대학교이다. 개교 50년 이래 티베트민족학원은 당의 교육방침과 민족정책을 진지하게 관철하였다. 티베트의 당면 과제와 티베트를 위해 봉사하는 학교로 운영하고 애국을 실천하고, 티베트를 발전하게 하며 학문에 충실하고, 투철한 직업의식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며, 티베트를 위하여 뛰어난 자질을 가진 소수민족간부와 전문적인 기술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티베트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후진타오는 당의 17대 대회에서 새로운 시대조건 하에서 지속적인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청사진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티베트의 경제사회가 빠르게 발전함과 동시에 사회질서가 장기간 안정되고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일보된 방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 “티베트민족학원은 전면적으로 당의 17대 정신을 철저히 실현하고, 우수한 전통을 이어가며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며 민족교육 법규를 탐구하고, 가르치는 방법 및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하고 티베트간부 양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티베트 경제사회 발전을 추진하며, 티베트와 각 민족 인민생활을 개선하고 티베트 안전단결을 위해서는 티베트인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2008년 10월 5일 티베트민족학원 개교 50주년 경축행사에서 제10

제를 완비하고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간주하고 있다.
79) <http://www.china.com.cn> (검색일: 2010.11.10).

기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르띠(熱地)는 후진타오 주석의 축하메시지 내용에 담긴 정신을 상기시키며, 열정적으로 학습에 임하여 개교 5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일류 민족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진일보된 애국주의와 민족단결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소수민족 인재를 양성하여 티베트개혁발전과 안전축진을 위하여 큰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⁸⁰⁾

다민족국가체제의 중국으로서는 민족의 단결은 매우 중요하며, 특별히 강조하는 민족정책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민족단결에 대해 다시 정리해 보면 민족단결은 크게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이론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먼저 마오쩌둥의 민족단결이론을 보면 그는 중국혁명과 건설과정 중 마르크스의 민족이론을 최대한 발전시켰다. 마오는 민족단결의 중요성과 민족단결의 기초, 조건, 목적, 목표, 민족내부단결과 민족 간의 간결의 과제 등 완전한 사상이론체계를 만들었다. 마오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민족단결의 핵심역량을 서술했으며, “공산당의 단결을 통해서만 계급과 민족의 단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마오는 민족단결을 중국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소수민족의 통일전선사업을 중요시하고 이것을 각 민족단결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고 소수민족 간부들의 민족단결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⁸¹⁾

덩샤오핑의 민족단결 사상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민족평등단결사상을 계승, 발전 강화시켰다. 중화민족의 이익에 중점을 두고 중화민족 대단결을 위해 투쟁하고 조국통일 사업을 실현해 더욱 풍부하고 발전된 당의 민족단결 정책사상을 확립했다. 덩샤오핑의 민족단결 사상 중에는 당의 기본노선의 공고함이 민족단결의 정치기초가 되고 소수민족과 소수민족 경제발전이 민족단결의 경제기초가 되고 있으며, 당의 단결은 곧

80) <http://www.ce.cn> (검색일: 2010.11.12).

81) 조정남, 『현대중국의 민족정책』 (한국학술정보, 2006), p.333.

민족의 단결이라며 지도자의 단결을 강조했다. 또한 대한족주의(大漢族主義)와 지방민족주의(地方民族主義)를 강력히 반대하고 민족 간의 거리는 단결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덩샤오핑의 민족단결사상은 전체 중화민족의 대단결을 강조하며, 단지 광범위한 민족단결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단결을 이끌어낼까, 민족단결의 근본목표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민족경제를 발전시킬까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⁸²⁾

위와 같은 민족단결 이론과 사상을 바탕으로 민족단결교육이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이다. 민족단결교육은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소수민족의 학생들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의 학생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교육내용은 56개 중국 민족의 역사, 문화, 종교, 풍속 등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민족단결교육을 위해 중국교육부 인터넷 사이트 2008년 12월 15일자에서 <학교민족단결교육지도 개요(시행)>를 발표하였다. 전국 초·중등학교는 전문적 민족단결교육과정을 설치하기로 했다. 동시에 각 학년별로 별도의 과정을 개설 및 시간을 배정하였다. 시행령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년마다 10-12시간의 학습시간을 배정하고, 고등학교는 각 학년마다 8-10시간의 학습시간을 배정했고, 중등직업기술학교는 각 학년마다 12-14시간의 학습시간을 배정하였다. 개요(시행)는 각 학년의 학습내용과 중심요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초등학교 5, 6학년은 민족상식교육을 가르친다. 그 내용은 “민족단결을 촉진하고, 국가통일을 수호하고, 민족분열을 반대한다.”는 필요성의 기본인식을 주입시키는 것이다. 고등학교(중등직업기술학교 1, 2학년)는 민족이론상식 교육을 가르친다. 고등학생에게는 직업생활과 교류를 왕성하게 하고 정확한 민족관계를 정립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중학교(7, 8학년)단계는 민족정책상식교육을 가르쳐 중학생에게는 일상생활 중에서 민족정책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민족정책의 문

82) 조정남(2006), 앞의 책, pp.347-348.

제를 분석, 해결하고자 하는 정신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고등학교단계(일반고등학교 10, 11학년과 중등직업기술학교 1, 2학년)는 민족이론상식교육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 단계의 학생에게는 비교적 진일보하여 공산당과 국가민족정책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자신감을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다.⁸³⁾

이러한 중국정부의 민족단결교육의 열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과 2009년, 1년 간격으로 3·14사건과 신장위구르의 7·5사태가 발생함으로써 민족단결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국 교육부와 국가민족사무위원회는 ‘민족단결’ 과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고교와 대학 입학시험에 정치 과목의 15% 이내에서 ‘민족단결’ 과목의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관련 교과서와 영상자료 등 교재를 일괄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각 성급 교육행정 당국에는 매년 11월 말 지역별 ‘민족단결’ 교육 현황을 상부에 보고⁸⁴⁾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2. 3·14사건 이후 티베트민족의 대응

1) 민족노선에 따른 차별적 대응

수많은 사상자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3·14사건과 같은 티베트민족 독립운동에서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싸에서 티베트 시위 군중들은 독립과 달라이 라마를 외쳤고, 다람살라의 주요 사원에서 공식 대변인들은 망명지에서 티베트 생활방식을 재건하고 미래의 자유티베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장했다. 티베트의 사원에서 비구와

83) <http://www.ce.cn> (검색일: 2010.11.14).

84) 『한국일보』, 2009.07.18.

비구니 승려들은 티베트 국기를 만들고 반 중국 노래와 정치적 선전물들을 만들었다. 인도에 있는 티베트 학교 어린이들은 티베트 언어와 역사를 배우고 티베트 문화 활동에 참가하고 티베트인의 집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그림이 벽을 장식했으며 미디어에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나타났다.⁸⁵⁾ 그리고 시위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티베트의 일부 승려들은 3·14사건 중에 있었던 폭력행위에 대하여 반감을 표시하였다. 중국은 법제국가이므로 인민들은 정치 분야에 대한 불만을 합법적인 수단 내에서 표시할 수 있다. 중국법률은 시위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만약 승려들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위를 했다면 그것은 평화적 시위활동이다. 그러나 만약 법적절차 없이 시위활동을 했다면 그것은 위법행위이다⁸⁶⁾며 중국정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었다.

티베트민족에게 있어 달라이 라마의 위상은 말 그대로 활불이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다. 봉건적 신정 체제의 유지가 여전한 티베트에서 달라이 라마의 행동과 말 한마디는 어찌하면 그래도 율법일 수도 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종교 문화적 습속이 정치 사회화 과정을 거쳐 티베트 인민들에게 내면화된 신앙의 대상이다. 달라이 라마의 말과 행동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보인 개인이나 집단이 아직 없었다. 달라이 라마가 가진 티베트의 구상으로서 중도주의적 접근은 망명정부 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티베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내외적으로 공표되었다. 그러나 시위와 소요의 관성이 그렇다 하더라도 2008년 3월 티베트 일원에서 시작된 정치적 시위는 달라이 라마의 거듭된 폭력 금지의 ‘말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무력 및 무장투쟁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과격한 폭력 노선의 배후에 티베트 청년 동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14사건 당시 계속된 폭력 노선과 시위가 확산일로로 걷는다면 달라이 라마 직에서 물러나겠노라고 배수진을 쳤다.

85) 정친구(2008), 앞의 논문, p.242.

86) <http://www.china.com.cn> (검색일: 2010.04.15).

분명 티베트의 미래와 장래를 둘러싼 이견 노출이 내부적으로 있었으리라고는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공개적인 불화로까지 표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8년 시위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달라이 라마의 말이 어느 시기에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달라이 라마의 위상이 티베트인들의 마음속에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의 말이 절대선이 아니라는 달라이 라마에 대한 신심의 균열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수 있다. 비폭력 평화주의를 설파하는 그의 대화 노선에 극렬한 무장투쟁만이 대안일 수 있다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함을 보여주었고 달라이 라마가 주장하는 고도자치가 아닌 티베트의 완전한 분리독립만이 티베트인들의 최종 목표라고 해석할 수 있는 행동도 보였다.⁸⁷⁾ 예컨대 달라이 라마는 ‘인권탄압 행사’라고 불리는 베이징올림픽에 대해 ‘보이코트에는 반대’라는 입장을 보여,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티베트 청년회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달라이 라마는 중국정부와의 평화적 대화를 통한 ‘자치 획득’을 주장해 왔으나, 티베트 청년회는 독립을 위해서라면 폭력 시위를 비롯해 급진적 수단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⁸⁸⁾

3·14사건 당시 티베트 청년동맹이 시위를 주도하고 많은 티베트인들이 독립요구를 원하는 과정에서 달라이 라마의 위상은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틈을 타서 중국정부는 달라이 라마를 티베트의 폭력 과격 노선의 배후로 지목하고 그의 평화주의적 노선의 국제적 이미지를 폄하하고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중국정부는 달라이 라마 측이 먼저 제안하는 협상에는 응하지는 않았다.

그 이후 국제적 여론을 의식하여 쌍방이 대화의 창구를 열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는 중국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진전이 나타나지 않자 “나는 이제 티베트의 장래 문제를 전체 티베트인에게 넘기고자 한다.”며 “다음 달 티

87) 나영주,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구상”, 『민족연구』 35호 (한국민족연구원, 2009), p.95.

88) 이민자(2009), 앞의 논문, p.6.

베트 미래 특별대회를 열어 민중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⁸⁹⁾이라고 했다. 달라이 라마가 요구하는 고도자치는 물론 3·14사건과 같은 유혈시위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달라이 라마는 궁여지책으로 티베트의 장래 문제를 티베트인에게 물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11월 티베트 망명정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평화노선의 유효성을 집중 토의하고 표결을 부쳤다. 찬성 70%로 일단 중도 노선을 견지하기로 했지만 30%의 반대가 있었다.⁹⁰⁾ 이와 같이 절대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가 지향하고 표방하는 평화노선이 30%의 반대론자가 있다는 것은 달라이 라마의 위상을 흔드는 일 일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중국정부와의 평화적 협상이나 고도자치만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3·14사건으로 티베트민족 내부가 일치되지 못하고, 노선 갈등은 있었으나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인들은 티베트 문제를 국제화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가 티베트에 대한 국내의 비판여론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면서도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의 압력을 동시에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중국이나 망명정부 모두 조건을 걸기는 했으나 대화를 시도했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티베트 불교 유적에 대한 막대한 경비를 약속하는 등 새로운 대티베트 유화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점 때문에 현재의 자치권을 제한적으로 확대하는데 양측이 합의할 경우 잠정적인 평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⁹¹⁾

89) 『동아일보』, 2008.10.28.

90) 『세계일보』, 2009.04.03.

91) 이희욱(2008), 앞의 논문, p.293.

2) 언어, 종교정책 등에 대한 대응

중국정부의 유화적, 문화통치의 일환으로 이중언어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티베트인들의 반감을 완화시키지 못했다. 표면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상황은 다소 차이가 나게 마련으로, 이중언어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사건이 2010년 10월 19일 칭하이(靑海)성에서 발생하였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프리 티베트 캠페인(Free Tibet Campaign)’과 주민들에 따르면 티베트어와 영어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을 모두 중국어 교과서를 통해 중국어로만 하도록 한 교육정책이 원인이 되어 티베트인 학생 수 천명이 19일 중국 칭하이성 황난(黃南)장족자치구 주도인 통런(同仁. 랍쿱)에서 중국당국의 민족어 말살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⁹²⁾

시위에 참가한 학교는 통런현제일민족중학, 통런현일부민족학교, 통런현 서의학원, 통런현기숙학교, 황난사범대학, 황난민족중학 등으로 “민족평등 언어자유(民族平等語言自由)”의 구호를 외치며, 중국정부의 언어정책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였다. 처음 통런현제일중학교에서 시작되어 차츰 주변 학교 학생들이 시위에 참가하면서, 승려와 일반인들도 시위에 동조 참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20~30여대의 경찰차가 현장을 순찰 돌면서 시위대는 해산이 되었지만 시위참가자들의 해산 후의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다고 했다.⁹³⁾ ‘프리 티베트 캠페인(Free Tibet Campaign)’단체는 다른 대규모 시위와 달리 현지 경찰들이 이 학생들의 시위를 방해하거나 저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은 앞으로 구금되거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나타내었다.⁹⁴⁾

92) 『세계일보』, 2010.10.20.

93) <http://xizang-zhiye.org/chinese> (검색일: 2010.10.20).

94) 『세계일보』, 2010.10.20.

그리고 중국정부 당국의 티베트 종교에 대한 과민한 정책조치의 반감도 나타났다. 2009년 칭하이성에 거주하는 티베트인 승려들이 3·14사건 1주년과 맞물려 평화적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 시위의 이유로 승려들이 군 기지나 교도소 등으로 옮겨져 ‘정치적 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티베트 옹호 단체 ‘국제티베트운동(ICT)’이 주장하였다. ICT는 칭하이성 구이난(貴南)현에 위치한 티베트 사원 소속의 승려 100명 이상이 지역 당국에 의해 사원으로 부터 “교육을 위해 이송(taken for study)됐다”면서 다른 승려들은 심문과 고문, 구타를 당했다고 말했다. ICT는 ‘교육을 위해 이송’됐다는 표현에 대해 “군 기지나 감옥 등 정치적 재교육을 받을 장소로 옮겨지게 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⁹⁵⁾ 이 칭하이성 티베트 승려들의 평화적 시위는 3·14사건 1주년을 즈음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국제평화회의에 참석하는 달라이 라마⁹⁶⁾의 활동을 방해하고 그의 행보에 제동을 걸려는 중국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달라이 라마 측은 인도에서 <전체 티베트민족 관련 명실상부한 자치건의를 실현하다>를 일부분 배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2008년 12월 3일 정부매체를 통하여 문건을 발표, 대응을 하였다. 달라이 라마 측은 <자치건의> 중에서 첫째 모든 티베트지역은 통일된 자치체계를 요구한다. 둘째 자치권력이 중앙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 12월 3일 정부매체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중국민족구역 자치를 연구한 마오공링(毛公寧)은 자신의 연구자료를 발표하였다. 마오공링은 달라이 라마 측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실제로 감히 경솔하게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또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도는 국가통일의 지도 아래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는 것이며, 통일과 자치의 유기적 결

95) 『연합뉴스』, 2009.03.16.

96) 『세계일보』, 2009.04.03.

합이다. 이는 중앙정부와 민족자치, 지방자치기관 사이의 단순한 분권 관계가 아니라 통일과 자치의 변증법적 결합관계이다. 달라이 라마 측에서 요구하는 중앙정부와 “권력 분배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은 국가의 통일지도와 민족구역자치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며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의 기본원칙은 근본적으로 검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리고 중국의 민족구역자치는 민족, 지역, 정치, 경제, 역사와 현실 등 각 요소의 통일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민족구역자치는 단순한 민족자치 혹은 구역자치가 아니라 상술한 다각도의 요소가 결합한 것이라 했다. 또 마오공링은 달라이 라마 측의 <자치건의>에 대해 이렇게 반문했다. “단순히 민족을 근거로 경계선을 그으면 인위적인 민족차별과 민족격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여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도는 곧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고 민족단결발전을 촉진하는 것의 긴밀한 결합이다. 신중국을 건설하는 동안 특히 개혁개방 이래 당과 국가는 일련의 특별한 정책조치를 제정하였고, 그 결과 소수민족과 민족구역이 빠르게 발전하였다. 이는 중국의 민족구역자치제도와 정책이 각 민족의 근본 이익의 척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 측의 <자치건의>는 티베트족의 권력만 다루었을 뿐 기타 민족은 전혀 무시한 것이다. 즉 티베트민족이 얻은 발전상황은 입을 다물며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명실상부한 자치”만을 요구하는 것은 티베트는 물론 각 민족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민족구역자치는 중국이 민족문제를 해결한 기본 정치제도로 매우 우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 민족구역자치제도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달라이 라마 측의 <자치건의> 중에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많은 기타 민족을 들어오게 하여 티베트의 자치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민족 “단간(單干: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다)”을 원하고 있으며 티베트와 중국내지와 분리하고 폐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마오공링은 말했다. 끝으로 그는 달라이

라마 측은 중국의 민족구역자치 구현을 반대하고 여전히 “고도자치(高度自治), 대장구(大藏區)”⁹⁷⁾를 고수하며, 티베트인들의 근본이익에 반대되는 주장으로 출구가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였다.⁹⁸⁾

달라이 라마는 한 때 그의 위상이 조금은 흔들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티베트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이다. 그런 그가 2010년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그는 중국지도부의 퇴진을 주장하였다. 그는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미의회에서 열린 민주주의 재단(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메달 수여식에 참석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영예롭게 물러나야 하며, 민주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정통성이 결여됐고,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회주의보다는 ‘권위주의적 자본주의’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달라이 라마는 특히 “정신적 파산 상태로 부패가 만연한 중국 지도부는 이전 세대가 주창한 ‘계급없는 사회’의 비전을 구현하기 보다는 돈을 만드는데만 집착하고 있다.”⁹⁹⁾며 중국지도부를 비난하였다. 이러한 달라이 라마의 주장에도 미국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오바마 미대통령은 달라이 라마와의 면담에서 단지 “티베트가 독특한 종교적, 문화적, 언어적인 독자성을 보존해 가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며 중국과 티베트의 상호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대화의 재개가 필요하다고 할 뿐이었다. 달라이 라마의 미국 방문과 발언으로 중국정부는 미·중관계의 손상을 가져왔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97) 고도자치, 대장구: 중국 정부의 외교·국방권을 인정하되 현 티베트자치구에 과거 티베트 영향권이었던 인근 지역을 합쳐 홍콩과 같은 고도의 자치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 칭하이 성 전체와 간쑤 성의 1/3, 신장위구르자치구의 1/4, 쓰촨 성의 1/3, 윈난 성의 1/4를 합친 땅이다. 면적은 240km².

98) <http://www.china.com.cn> (검색일: 2010.11.10).

99) <http://www.cbs.co.kr> (검색일: 2010.02.20).

앞서 언급한 부분이 있듯이 차후 달라이 라마의 선임은 중국정부가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와 티베트 망명정부의 대응방안은 다르게 작용하고 있다. 그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대목이 2010년 10월 달라이 라마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화교들과의 면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면담에서 퇴임 후와 전세영동(轉世靈童: 환생한 어린 달라이 라마)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급하였다. 먼저 퇴임과 티베트 회귀에 대한 질문에 그는 매 6개월 마다 회원대회를 개최하는데 지난 번 인도남부에서 1차 회의에서 “내가 인권이 있느냐?, 내가 무슨 퇴임의 권리가 있느냐? 나는 티베트로 돌아갈 것이다. 1983년에 티베트에 가기를 원했고 그 후 1992년에도 가고자 했다. 그리고 2005년에도 티베트에 가고자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는 사안이다. 나를 ‘분열분자’로 내 몰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차기 달라이 라마를 여성으로 선임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미 6,7백년 전 달라이 라마 중에는 여성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상단(桑丹), 뚜오지파모(多吉帕姆)가 그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전세영동을 여자아이로 지목하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달라이 라마의 제도를 계속하는 것은 민중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2001년 티베트의 정치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사안은 이미 민중이 직접 수석부장을 선출하였다. 이로써 달라이 라마는 정치에 자연스럽게 관여하지 않는 것이라 했다. 또 그는 “500여년을 이어온 정교일치가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항상 말하지만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허락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중국도 당과 정부가 분리 되어야 한다. 특히 법은 당의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탐오와 부패가 만연하고 총살집행이 아직 행해

지고 있다. 법치와 사회의 투명화가 없다면 중국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¹⁰⁰⁾라고 중국의 지도부를 비판하였다.



100) www.dalailama.com (검색일: 2011.03.08).

제4장 결론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08년 3월 티베트에서 발생한 3·14유혈시위사건을 중심으로 이 유혈시위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찾아보고, 또 티베트인들의 독립요구와 활동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3·14사건으로 나타난 국제사회의 반응과 중국정부가 어떠한 대응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의 중국정부의 티베트 및 소수민족에 대한 임시적 정책조치와 티베트민족의 대응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중국과 티베트 간의 오랜 역사적 관계를 볼 때 전쟁과 화맹 그리고 점령과 복속 등 다양한 형태로 대립적 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3·14사건은 단순히 2008년 3월 14일에 발생한 단발성 유혈시위사건이 아니라 티베트에는 3·14사건과 같은 유혈시위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요인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티베트나 여타 소수민족의 갈등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표명을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현재 국제사회가 티베트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명확한 연구는 다소 한계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미 오래 전 냉전체제가 무너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고, 공산정권이 국가체제를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 부분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며 언론 자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2008년 당시 중국정부는 티베트 3·14사건에 대하여 보도를 통제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 사건내용을 분석하는데 있어 일부 한계가 있다.

중국정부는 티베트의 분리독립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오랜 역사적 관계를 차치하고 분리독립 차단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군사·지리적 측면에서 중국과 인도의 국경문제에 있다. 티베트는 인도와 접경지대에 위치하여

인도와 국경분쟁을 야기 시키는 지역이다. 1962년과 1975년 히말라야 국경 지대에서 인도와 대규모 전투가 발발하기도 했다. 또한 티베트는 미얀마, 네팔, 캐시미르와도 국경을 이루고 있어 국경 간 완충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은 다민족국가를 표방하므로 민족분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정부는 중국내 분리 독립운동을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티베트의 독립이 허용된다면 여타 소수민족의 독립요구가 확산되어 다원일체, 중화민족 건설의 존립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을 보면 티베트 내의 풍부한 지하자원에 있다. 중국정부가 1999년 서부대개발 실시 때 본격적으로 티베트지역의 지하자원을 탐사한 결과 각종 광산 120종으로 저장광산 84종이 탐명되었으며 자원 잠재 가치가 183,800억 위안 이상이다. 동·호염·리튬은 국제적으로 우수한 품종이고, 크롬 철광·칼리·암염·금·석면 등은 중국에서 제일 우수 품종이며 석유·천연가스·규석·보옥석·건축재 및 비금속광산 등도 대단히 풍부하다. 흑색 금속광산, 유색금속광산, 금속광산 및 비금속광산이 94종이고 광산지가 2,000여 곳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탐명저장량이 46종으로 산지가 164곳이 있으며, 전국의 10위 안에 드는 광종이 18종이 있다.¹⁰¹⁾ 그러므로 티베트는 군사·지리·정치·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써 분리 독립을 허용할 수도 없으며, 허용했어도 안 되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3·14사건 이후에도 중국정부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적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그로 인해 반대급부 적으로 중국사회에서는 3·14사건을 계기로 비이성적 애국주의와 과격한 민족주의적 행동이 대내외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올림픽 성화봉송 과정과 인터넷상에서는 물론 외교적으로도 서방국가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격한 민족주의적 행동을 표출할 수가 있고, 또한 국

101) 이한석, 『중국 서부대개발』 (대중, 2005), pp.521-522.

제사회가 그러한 행동들을 암묵적 묵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그 만큼 제고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중국의 티베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일 사건의 발생으로 급변하여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소수민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티베트 정책, 티베트 연구, 그리고 서부대개발 등 국가적 프로젝트를 통하여 중국내의 자치구로써 점진적으로 안정화되면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는 달라이 라마와의 갈등 문제에 있어서 그가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자연히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현 14대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인들에게 살아있는 부처이며, 정신적, 정치적 지주이며 지도자이다. 그러므로 티베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과 위상으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갈등과 폐단을 소멸시키기 위해 이미 ‘티베트 불교 활발계승 관리방법(藏傳佛教活佛轉世管理辦法)’을 제정, 차후 중국정부가 직접 달라이 라마를 선임토록 하여 달라이 라마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다민족국가체제에서 강성 소수민족이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투쟁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적인 역사과정이었다. 구소련이 사회주의 체제의 폐단으로 연방체제가 무너지면서 구소련 내의 소수민족들이 순리적으로 분리독립을 하였다. 중국은 구소련과 달리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어 구소련과 같은 체제 붕괴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티베트에서 3·14사건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로써 국제사회에 티베트의 독립요구와 인권상황 등을 알리고 중국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물론 일시적으로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국제사회는 티베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는 것이 현재 국제사회의 흐름임으로 중국정부도 3·14사건 이전

의 시각으로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보다 열린 시각으로 티베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중국은 주요 2개국(G2),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급성장하였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중국이니 만큼 머지않은 장래에 티베트 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여 정치적으로도 변화된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김규현, 『티베트 문화산책』 (정신세계사, 2004).
- 김병호, 『중국의 민족문제와 조선족』 (학고방, 1997).
- 김한규, 『티베트와 중국: 그 역사적 관계에 대한 연구적 이해』 (소나무, 2000).
- _____, 『티베트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 (혜안, 2003).
- 아마 아데·조이블레이크슬리 기록, 김은주·김조년 옮김, 『그래도 내 마음은 티베트에 사네』 (궁리, 2007).
- 아브라함 루스트가르텐·한정은 옮김, 『중국의 거대한 기차』 (에버리치홀딩스, 2009).
- 이한석, 『중국 서부대개발』 (대중, 2005).
- R,A 슈타인·안성두 옮김, 『티벳의 문화』 (무우수, 2004).
- 조정남, 『현대중국의 민족정책』 (한국학술정보, 2006).
- _____, 『현재정치와 민족문제』 (교양사회, 2002).
- 토머스 레어드·황정연 옮김, 『달라이 라마가 들려주는 티베트 이야기』 (웅진지식하우스, 2008).
- 폴 인그렘·홍성녕 옮김, 『티베트 말하지 못한 진실』 (알마, 2008).

2) 논문

- 금희연·진인영,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관한 연구 -서남중국 소수민족의 정치

- 참여와 교육 및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 『세계지역연구논총』 제12집, (한국세계지역학회, 1998).
- 길희성, “티베트 불교 민족주의의 역사적 고찰”, 『동아연구』 제36집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8).
- 김대광,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김병호, “중국의 지도자별 민족이론”, 『민족연구』 9호 (한국민족연구원, 2002).
- _____, “중국의 민족이론정책과 법률에 있어서의 연변 조선족의 지위”, 『평화연구』 제8집 1호 (고려대 평화연구소, 1999).
- 김석근, “티베트 불교와 ‘달라이 라마’의 역사정치학: ‘정치와 종교’의 얽힘과 분화를 중심으로”, 『동양정치사상사』 제4집 2호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5).
- 김선호, “내몽고자치구 성립과정 연구”, 『중앙아시아연구』 1호 (중앙아시아학회, 1996).
- 김일억, 『중국의 개혁개방과 소수민족정책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재기, 『중국-티베트 민족갈등의 정치적 동학: 국내외 집단요인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_____, “중국의 민족문제와 ‘서부대개발’: 정치경제적 배경과 딜레마”, 『한국동북아논총』 제18집 (한국동북아학회, 2001).
- _____, “티베트의 중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 운동의 기원과 전개”,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3호 (대한정치학회, 2006).
- _____, “티베트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과 중국의 대응: 2008년 3월 유혈분쟁과 북경올림픽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

- 55집 (한국동북아학회, 2010).
- 김재원, “중국의 대티베트 정책의 변화와 유형”, 『민족연구』 35호 (한국민족연구원, 2009).
- 김정호, “중국의 소수민족교육과 다민족교육 -중국초등사회과의 다문화 교육내용 탐색-”, 『사회과 교육』 제47집 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8).
- 나영주,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구상”, 『민족연구』 35호 (한국민족연구원 2009).
- 노진선미, 『중국의 티베트자치구 소수민족 정책 연구: 정책의 변화와 연속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장배, “티베트 민족문제의 역사적 궤적”, 『역사비평』 85호(역사비평사, 2008).
- _____, “19세기말~20세기초 티베트의 군주론의 변용”, 『동북아문화연구』 제19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 _____, “신중국’의 티베트 정책”, 『중국현대사연구』 39호(한국중국근현대사학회, 2008).
- 박정목,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의 정치적 함의』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원천식, “중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과 정책적 시사점: 칭짱철도 개통과 ‘친디아경제권’ 형성을 중심으로”, 『KIET 산업경제』 101호 (산업연구원, 2007).
- 윤휘탁, “현대중국의 서부변강민족정책과 ‘국민국가’ 완성하기 -‘서부대개발’을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제37집 (중국사학회, 2005).
- 이경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관한 연구 -대티베트정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동률, “중국 신장의 분리주의 운동: 현황과 영향력”,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 _____, “중국 신장의 민족갈등 -‘중국화’와 저항의 동학”, 『역사비평』 85호 (역사비평사, 2008).
- _____, “중국의 티베트 연구(藏學) 동향과 티베트정책”, 『중소연구』 제29집 3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2005).
- 이민자, “2008년 티베트인 시위를 통해 본 중국의 티베트 문제”, 『현대중국연구』 제11집 1호 (현대중국학회, 2009).
- 이유진, “중국 (1793~2008) 그 정체성을 묻는다”, 『중국어문학논집』 50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8).
- 이재호, 『중국의 티베트 분리독립에 대한 대응정책』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진영,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민족연구』 9호 (한국민족연구원, 2002).
- 이희옥, “티베트 자치문제의 지속과 변화: 3.14사건 분석을 위한 시론”, 『중국학연구』 제45집 (중국학연구회, 2008).
- 전황수,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IT정책”, 『전자통신동향분석』 18집 6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3).
- 정천구, “달라이 라마의 비폭력 티베트민족독립운동”, 『서석사회과학논총』 제1집 1호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2008).
- 조경란, “중국의 주변문제, 티베트를 보는 다른 눈 -한족 출신 양심적 지식인 왕리승과의 대담”, 『역사비평』 85호 (역사비평사, 2008).
- _____, “현대 중국의 소수민에 대한 ‘국민화’ 이데올로기-중화민족론을 중심으로”, 『시대와 철학』 제17집 3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06).
- 최지영, “중국의 티베트 정책 고찰(1949~2008): 민족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인식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49집
5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피터 시몬즈, “티베트 불교의 기묘한 정치학”, (월간 말, 2000.7).

3) 中文

舒知生, 『西藏今昔』(三聯書店, 2008).

許廣智, 『西藏地方革命史稿』(中國藏學出版社, 2008).

多杰才旦·江村羅布, 主編. 『西藏經濟簡史上下』(中國藏學出版社,
2003).

沈宗濂·柳陞棋, 『西藏与西藏人』(中國藏學出版社, 2006).

張崇根, 『中國民族工作歷程.呼和浩特』(遠方出版社, 1999).

羅潤蒼, 『西藏佛教思想的政教關係』(中國藏學, 1994).

李祥妹·劉健, 『西藏自治區農牧民人均純收入動態分析』(山地學刊, 第21卷增刊
2003).

陣華, 『試論西藏的人口與環境』(西藏大學大學報, 第16卷 2001).

『中國人民共和國憲法』.

『中國人民共和國民族區域自治法』.

4) 정기간행물

『경향신문』, 2008년 03월 16일자.

『뉴스시스』, 2008년 04월 28일자.

『동아일보』, 2008년 10월 28일자.

『매일경제』, 2008년 04월 29일자.

『세계일보』, 2009년 04월 03일자.
_____, 2009년 08월 02일자.
_____, 2010년 01월 18일자.
_____, 2010년 05월 02일자.
_____, 2010년 10월 20일자.
『시사매거진』, 2008년 04월 25일자.
『연합뉴스』, 2008년 03월 16일자.
_____, 2008년 04월 12일자.
_____, 2009년 03월 09일자.
_____, 2009년 03월 15일자.
_____, 2009년 03월 16일자.
『조선일보』, 2008년 03월 18일자.
_____, 2008년 04월 11일자.
_____, 2009년 04월 02일자.
_____, 2009년 08월 25일자.
『한겨레신문』, 2008년 05월 05일자.
_____, 2010년 10월 22일자.
『한국일보』, 2009년 07월 18일자.
『人民日報』, 2007년 09월 03일자.
_____, 2010년 03월 09일자.
_____, 2010년 10월 11일자.
『China Daily』, 2009년 03월 17일자.
『The Wall Street Journal』, 2008년 03월 21일자.

5)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chinaemb.or.kr>

<http://www.freetibet.org>

<http://www.rangzen.com>

<http://www.savetibet.org>

<http://www.tibet40.cn>

<http://www.tibetanyouthcongress.org>

<http://www.xizang.gov.cn>

<http://xizang-zhiye.org/chinese>

<http://www.cbs.co.kr>

<http://dalailama.com>

<http://www.china.com.cn>

<http://news.xinhuanet.com>

<http://www.chinadaily.com.cn>

<http://www.jlxx.org>

<http://gb.cri.cn>

<http://www.ce.cn>

